

五倫行實圖卷第二目錄

忠臣

龍逢諫死

樂成鬪死

石碣純臣

王蠋絕脰

紀信誑楚

蘇武杖節

朱雲折檻

龔勝推印

李業授命

嵇紹衛帝

卞門忠孝

桓彝致死

顏袁罵賊

張許死守

張興鋸死

秀實奪笏

演芬快死

若水効死

劉幹捐生

傅察植立

邦父書襟

岳飛涅背

尹穀赴池

天祥不屈

枋得不食

和尚嚙血

絳山葬君

蝦蟇自焚

普顏全忠

堤上忠烈

不寧突陣

鄭李上疏

夢周殞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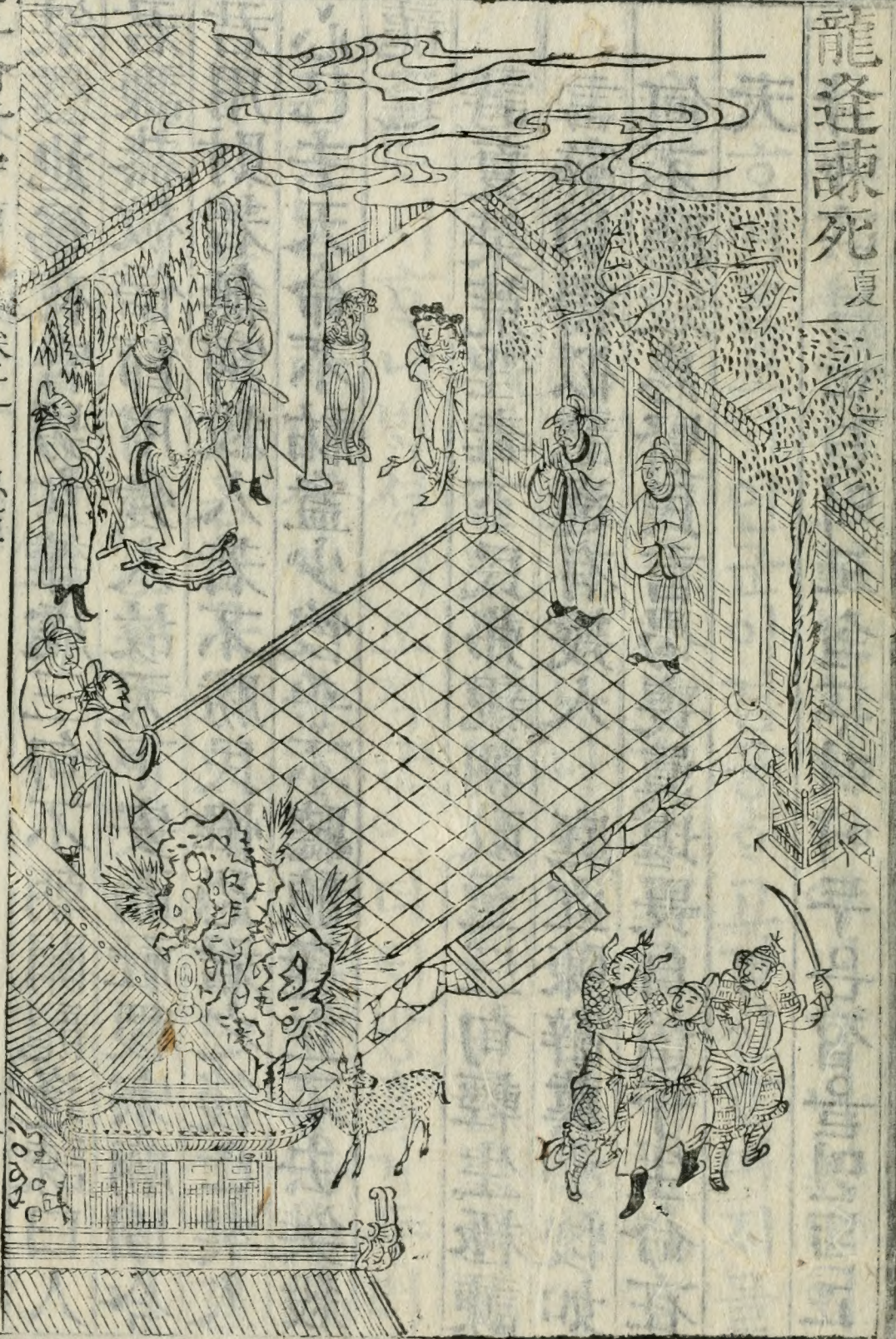
吉再抗節

原桂陷陣

龍逢諫死夏

五十四丁字

卷二 忠臣



王伯不置區
桀鑿池爲夜宮男女雜處三旬不朝關龍逢諫曰人
君謙恭敬信節用愛人故天下安而社稷宗廟固今
君用財若無窮殺人若不勝民惟恐君之後亡矣人
心已去天命不祐盍少悛乎不聽龍逢立不去桀殺
龍逢

詩夏桀荒淫毒下民弗親朝政至三旬輕生極諫
言辭切得似龍逢有幾人 庭立陳辭冀小悛如
何不聽殺忠賢民言曷喪真堪畏自道予生命在
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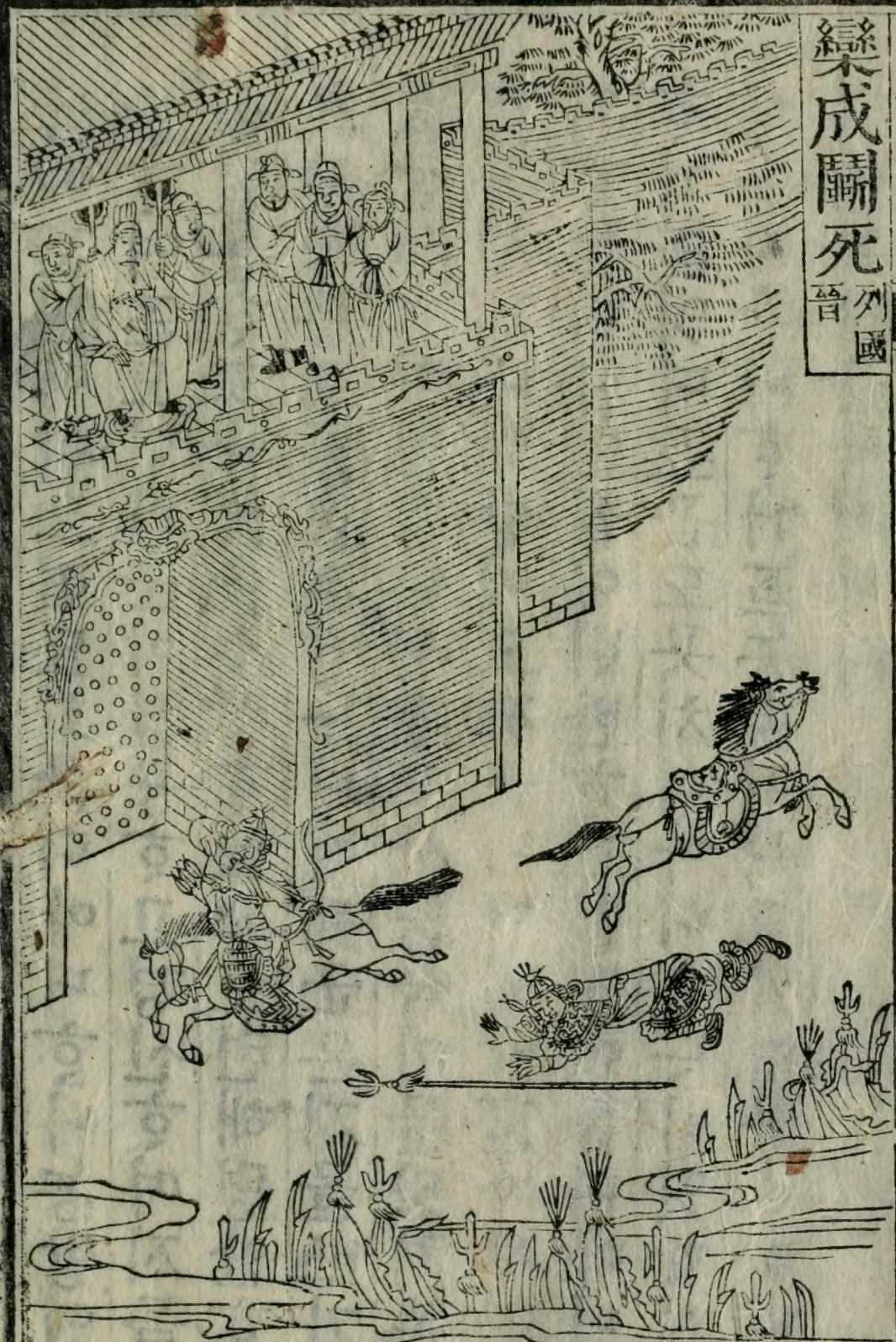
하나라님군일이모술푸며어두은집을민들고

남네흔디이셔오리도회밧디아니흐니농방이
간흐여곧오디인군이검공흐고경신흐며지물
을절용흐고사름을스랑흐는고로련해평안흐
고샤직종묘를보전흐느니이제군은지물쓰기
를궁진흐미업솔드시흐고사름죽이물밋쳐못
홀드시흐니백성이오직군이더디망홀가두려
위흐는디라인심이비반흐고련명이돕디아니
흐거늘엇디쇼곰도긔치디아니흐느니잇가결
이듯디아니흐거늘농방이셔고가디아니흐니
결이농방을죽이니라

王伯行寶圖

樂成鬪死

晉列國



曲沃武公伐翼殺哀侯止欒共子曰無死吾以子爲
上卿制晉國之政辭曰成聞之民生於三事之如一
父生之師教之君食之非父不生非食不長非教不
知生之族也故一事之唯其所在則致死焉報生以
死報賜以力人之道也成敢以私利廢人之道遂鬪
而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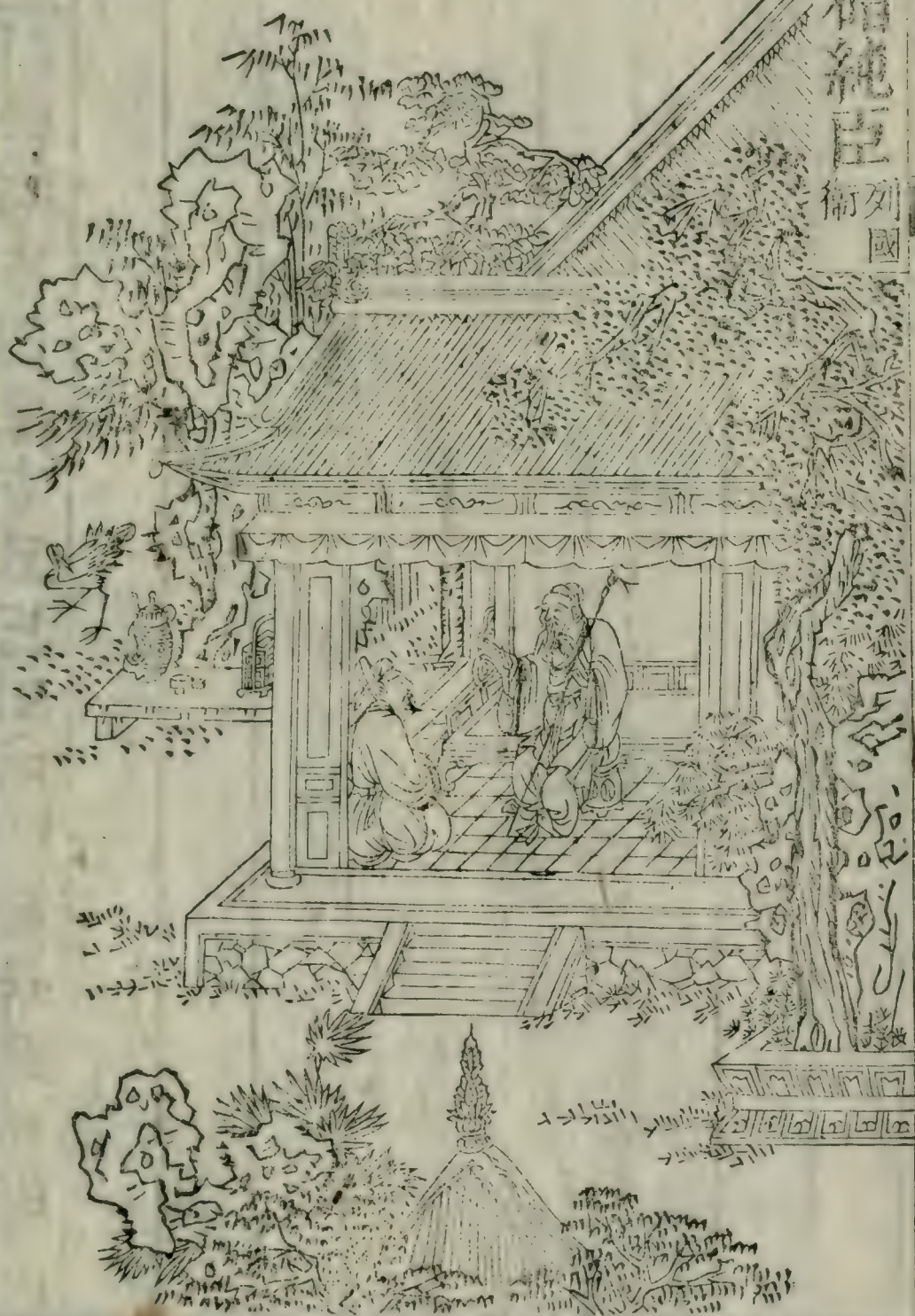
〔詩〕武公伐翼殺哀侯止死欒成待欲優縱受上卿
專國政其如不共戴天讎君師自古生之族所
在唯應以死酬大義胷中曾識得肯將私利爲身
謀

딘나라곡옥무공이익샤흘려이후를죽이고난
성을잡아닐오디죽디말라네닐로써상경벼슬
을하여나라정수를마음알게하리라성이소양
하여곧오디나는드르니백성이세곳의사라섬
기물흐곧갓티한다하니아비나호시고스승의
마르치고님군이먹이시니아비아니면나디못
하고밥이아니면주라디못하고마르치디아니
면아름이업는고로흐곧갓티섬겨죽기롤닐위
니니살오니는죽기로써갑고주느니는힘으로
써갑흐미사름의도리라네엇디니로써사름의

도리를 펴 하리우고 드디여 바화죽으니라

石碯純臣

衛列國



衛州吁弑桓公而立未能和其民石碏子厚問定君
於石碏碏曰王覲爲可曰何以得覲曰陳桓公方有
寵於王陳衛方睦若朝陳使請必可得也厚從州吁
如陳碏使告于陳曰衛國褊小老夫耄矣無能爲也
此二人者實弑寡君敢卽圖之陳人執之而請泣于
衛衛人使右宰醜泣殺州吁于濮碏使其宰孺羊肩
泣殺厚于陳君子曰石碏純臣也惡州吁而厚與焉
大義滅親其是之謂乎

詩家兒當賊致紛紜來問和民與定君國小無能
身亦老勸令王覲是奇勳陳人討賊是誰因老

子謀謨動四隣大義滅親如欲識請看青史記純臣

위나라 주위

한공의첩 아들이라

한공을죽이고스스로셔니

백성이화티아니하느니라석작의아들휘작드
려무려곧오디엇디하면님군을덩하리잇가작
이곧오디컨저괴뵈오미가하느니라휘곧오디엇
디뵈어더뵈오리잇가작이곧오디진한공이브
야흐로컨저괴통이잇고진과위소화목하니만
일진한공을보고청하면가히되리라석휘주우
로더브러진으로갓더니작이사람으로하여곰

진에 고하여 곧 오디 나라히 석고 내혀 능히 홀
일이 업노 디라 이 두 사 롬이 실로 우리 님 군을 죽
여 시니 청컨대 즉시 도모하라 진 환공이 주우와
석후를 잡아 위사 롬드려와 죽이라 훈대 위인이
우지_{이 버슬}라 취를 보내여 주우를 죽이고 석작이 또
가신을 보내여 그 아들 후를 죽이니 군지 곧 오디
석작은 통순훈신해라 주우를 먹위홀시 아들이
참예하니 큰 의로지 친을 멸훈다 훈은 석작을 너
르미로다

五傳不實圖

王蠋絕脰

齊列國



燕樂毅破齊聞畫邑人王蠋賢令軍中環畫邑三十里無入使人請蠋蠋謝不往燕人曰不來吾屠畫邑蠋曰忠臣不事二君烈女不更二夫齊王不用吾諫故退而耕於野國破君亡吾不能存而又欲劫之以兵吾與其不義而生不若死遂經其頸於樹枝自奮絕脰而死

詩燕人圍畫欲屠城節士安能枉已行不事二君當日語凜然千載樹風聲君亡國破不能存非義而生豈足論經死樹間方自慊千秋地下作忠魂

연나라당슈악의제나라를파하고획읍사름왕
축의어덜물듯고군동에녕하여획읍삼십리돌
침노티말라하고사름으로하여곰축을정호대
축이샤레하고가디아니하니연사름이곧오디
오디아니하면획읍을못디르리라축이곧오
통신은두님을섬기디아니하고넌녀는두지
아비를곳치디아니하니제왕이내간하는말
을쓰디아니하고로물러와들히바가더니나라
히파하고님이망하여시니내능히보존케못
하고또군수로협박하고저하니내그블의코살

므론타르리죽음만엇디못하다하교그목을남
게돌고스스로느려디니목이썩쳐죽으니라

五倫行實圖

紀信誑楚

漢



紀信漢將項羽圍滎陽漢王請和割滎陽以西爲漢
范增勸羽急攻滎陽王患之信曰事急矣臣請誑楚
王可以間出於是陳平夜出女子滎陽東門二千餘
人楚因四面擊之信乃乘王車黃屋左纛曰城中食
盡漢王降楚楚皆呼萬歲之城東觀以故王得與數
十騎從西門出走成臯羽燒殺信

詩漢王當日被重圍事急何人解指麾不有將軍
謀誑楚陳平雖智計無施攀龍附鳳幾英雄黃
屋生降爲沛公帝業縣縣基此舉蕭何不是漢元
功

괴신은 한나라 당숙제나 항위형양을 에워싸거늘
한왕이 싸흘베혀화친을 청하니 범증이 항우를
권하여 형양을 급히 터라하거늘 왕이 근심홀시
괴신이 곧 오디일이 급호디라신이 청컨대 초를
소길거시니 왕은 소이길로 드라나 쇼셔하고이
에진평이 밤에겨집이 천여인올 동문으로내여
보내여 싸흘려하노테하니 초나라군이 서면
으로티거늘신이이에왕의술위를드고황옥좌
독_{남군의 위의를}으로나와곧오디성등의군량이진하여
한왕이 초의항복하노라호대초군이 다만세를

부르고성동문으로가보거늘그스이에왕이수
십기를거느리고셔문으로나성교로드라나니
항위과신을볼에슬와죽이니라

蘇武杖節

漢



蘇武杜陵人以中郎將使匈奴會虞常謀殺衛律單于使律治之常引武副張勝知謀召武受辭武引刀自刺律驚自抱持武氣絕半日復息律謂武曰副有罪當相坐武曰本無謀又非親屬何謂相坐復舉劔擬之武不動乃幽武大窖中絕不飲食武齧雪與旃毛并咽之徙北海上使牧羝曰羝乳乃得歸武掘野鼠去草實而食杖漢節牧羊臥起操持節旄盡落單于使李陵置酒謂曰足下兄弟皆坐事自殺大夫人已不幸婦亦更嫁人生如朝露何自苦如此武曰臣事君猶子事父子爲父死無所恨願勿復言陵與飲

數日復曰一聽陵言武曰自分已死人矣必欲降請
効死於前陵見其至誠歎曰嗟乎義士陵與衛律罪
通于天因泣下與武決去始元六年武始得還

詩初承帝命使匈奴那料荒陲苦被拘強引受辭
終不屈堪嗟自刺絕還蘇牧羝掘鼠歷多艱杖
節持旄意尙閑不聽陵言期効死安知後日得生
還

소무는 한나라 두릉사육이니 동남당벼슬로써

흥노

복방오랑
개칭회라

에 소신갓더니 마춤우상이 위를

우
상

위를
은다
한나
라
사
육
으
로
흥
노
에
하
고
복
흥
재
라

을 죽이려 하다가 발각하매 선

위^{홍노왕}

위를로하여곰사희라하니우상이소

무의부스당승을다힌대물이무를불러쇼스를
바드니위갈을싸혀스스로먹다르니위를이놀
나붓들고말린대위반일을괴절하였다가다시
서거늘물이무드러닐러온오디부스의죄로맛
당이년좌하라위온오디본디모계업고또내
친속이아니어늘엇디하여년좌하리오물이갈
을드러죽이려하되위요동티아니하노디라이
에무를다함에가도고음식을근흐니위는과괴
에돌넌탈을섯거숨기더니다시복히우히옴겨

두고하여곰수양을먹이고수양이삿기쳐야노
하보내리라하니위먹을거시업서들에취곰글
파쥐먹던플열미를먹고한나라절을잡아누으
나안조나노티아니하니절되다셔러디더라천
위니릉

릉은한나라당슈로
흥노의항복호재라

으로하여곰술을가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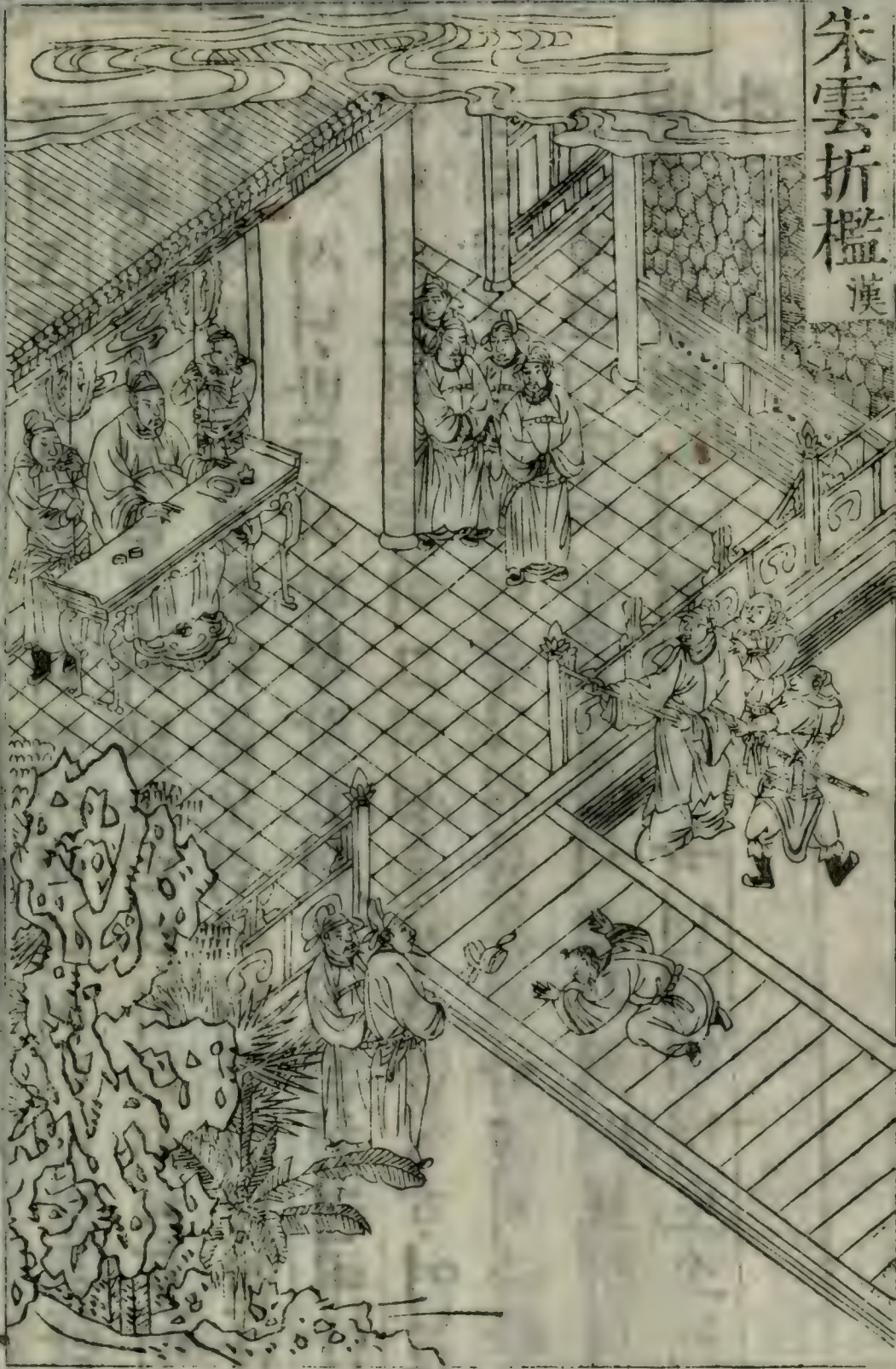
무릎다래여닐오디그디형테다죄에죽고대부
인도이의불헿헿고안히도또호리가하엿느디
라인싱이아참이술맛니엇디구득여이러트
시괴롭게하느뇨위곧오디신해님을섬기매
조식이아비섬김맛니조식이아비를위하여

죽어도 호호배업니 원컨대 다시 이런 말을 말
라 룡이 호가지로 두어 날 술 먹다 카다 시 날 오디
호번내 말을 드르라 뭐 곧 오디 이의 죽기로 결단
하여 시니 반드시 행복 밧고 저 호 거든 청컨대 알
귀셔 죽으리라 룡이 그 지성을 보고 탄식 하여 곧
오디 슬프다 의수여 룡과 위를 은 죄하느니 다 하
도다 호고 인하여 눈물을 흘니고 무로더 브러니
별 호고 갓 더니 시원 한쇼데대
년호라 녹년에 뭐네로 소도
라 오나라

五倫行實圖

朱雲折檻

漢



朱雲平陵人張禹以天子師國家大政必與定議時吏民多言災異王氏專政所致成帝然之乃至禹第問以天變因用吏民言王氏事而禹禹自見年老子孫弱又與王根不平恐爲所怨謂上曰災變之意深遠難見陛下宜修政事以善應之新學小生亂道誤人宜無信用上雅信禹由是不疑雲求見曰朝廷大臣皆尸位素餐願賜斬馬劍斷佞臣一人頭以厲其餘上問誰對曰張禹上大怒曰小臣廷辱師傅罪死不赦御史將雲下雲攀殿檻折呼曰臣得從龍逢比干遊足矣御史遂將雲去將軍辛慶忌免冠叩頭流

血爭上意解得已後當治檻上曰勿易因而輯之以
旌直臣

詩災異雖云降自天實由王氏久專權奈何張禹
依阿甚廷辱當時氣凜然誠心請斷佞人頭擬
與逢干地下遊治檻異時令勿易是知端爲直臣
畱

유운은한나라평능사람이니장위던조소부로
이서국가의큰일은던지미양우로터브러의논
하더니이때에지변이만흐니사람이다닐오더
왕시<sub>성례외
척이라</sub>권을잡은연피라흐니황태그리히너

기샤장우의집에가련변을무르시고인하야왕
시의논하노말을너르시니위스스로싱각호디
나히높고조손이약하니왕시와결원홀가두려
위하여상괴엇조오디지변되노쁘디김고머러
알기어려온디라폐하노맛당이정스를닷가어
딘일로응하실디니적문선비들이어즈러이말
하여사름을그릇되게하노니밋디마르쇼셔하
대상이본디장우를미드시논디라이러므로의
심티아니하시니쥬운이련조괴죄와곧오디도
팅대신이다녹만먹고제딕척을출히디못하오

니원컨대참마검을주셔든훈아당하느신하의
마리롤버혀다른사름을딩게하리이다상이무
르시디눌을니룬말인다디하여곧오디장우로
소이다상이대노하여곧샤디저근신해네스
승을욕하니그죄죽여샤티못하리라어시운을
잡아느리거눌운이대궐난간을잡으니난간이
부러디논디라운이크게소리하여곧오디신이
농방비간을조차놀미꼭하도소이다어셔드디
여운을잡아가니장군신경기관을벗고마리롤
두드려피흐르도록드룬대상의쓰디저기플니

샤운의 죄를 샤하고 후에 그 난간을 고칠 시상이
곧 샤디 밝고디 말고인 샤여 곳쳐 딛신을 표하
라 하시다

五侯七貴圖

漢勝推印

漢



龔勝楚郡人仕漢爲光祿大夫以王莽秉政乞骸骨
歸鄉莽旣篡位遣使奉璽書太子師友祭酒印綬安
車駟馬迎勝卽拜使者與郡縣長吏入里致詔使者
欲令勝起迎久立門外勝稱病篤使者致詔付璽書
進曰聖朝制作未定待君爲政勝曰素愚加以老病
命在朝夕隨使上道必死道路使者要說以印綬加
身勝輒推不受使者爲勝兩子及門人高暉等言朝
廷虛心待君以茅土之封雖疾病宜移至傳舍示有
行意必爲子孫遺大業暉等白之勝曰吾受漢家厚
恩無以報今年老朝暮入地諠豈以一身事二姓下

見故主哉因敕棺斂喪事語畢遂不復飲食積十四日死年七十九

詩新室方興國柄移乞歸鄉里是其宜竟稱病篤無行意何用安車駟馬爲身加印綬禮雖勤臣子何心事二君絕粒旬餘仍不起聞風孰不挹清芬

공승은한나라초군사름이니벼슬높여광복태우에니르러터니왕망이정스름잡으니벼슬을버리고고향의도라갓터니망이찬역하매스자름보내여시셔_{도세}와태조스우재주벼슬인슈

를 밧들고 거마를 초와 승을 마졸시 스재 군현
장니 라 원이 로 더 보러 승의 잡의가 도셔를 전홀시
스재 승으로 향여 곱나와 맛고져 향여 오래 문 밧
괴셔시니 승이 병들물 일곳고나오디 아니 향니
스재 명을 전향고 시셔를 맛져 졸오디 도령 제도
를 덩티 못향여 그 디를 게득리 낙니라 승이 졸오
디 내늘고 병드러 명이 도석에 악시니 스재 를 조
차가다가 반드시 길히셔 죽으리라 스재 인을 가
져 승의 몸의 터향니 승이 밀치고 밧디 아니 향거
늘 스재 승의 아들과 문인들드러 날오디 도령이

口음을기우려기느리너맛당이봉후에귀하
미이시리니비록질병이이셔나잠간각샤에올
마히힐뜻을뵈면반드시조손의게큰업을세치
리라문인등이이말을승의게고하너승이곧오
디내한나라후은을넘어갑하미업고이제나히
하어도모의죽을디라엇대호몸으로두님군을
섬기고디하의가벧님군을보리오하고인하여
상스제구를출히라하고밥먹디아나하여열나
흘만의죽으니나히칠십구세러라

李業授命
漢



五倫子實圖

卷二 忠臣

李業梓潼人元始中舉明經除爲郎王莽居攝以病去官隱藏山谷終莽之世公孫述僭號素聞業賢徵之欲以爲博士業固疾不起述使尹融持毒酒奉詔以劫若起則受公侯之位不起賜之以藥融譬旨曰方今天下分崩孰知是非朝廷貪慕名德曠官缺位宜上奉知己下爲子孫身名俱全不亦優乎今數年不起猜疑寇心凶禍立加非計之得者也業乃歎曰危國不入亂國不居親於其身爲不善者義所不從君子見危授命何乃誘以高位重餌哉融見業不屈曰宜呼室家計之業曰丈夫斷之於心久矣何妻子

之爲遂飲毒而死

詩明經應舉擅才名漢室除郎亦至榮告疾休官
終葬世公孫豈得餌公卿 天下分崩孰是非尹
融譬旨適貽譏丈夫固自由心斷妻子焉能授指
揮

니 업은 한 나라 지동사름아니 완시

한평대매
년호라

등에

명경과거하여 낭벼슬을하엿더니 왕망이 찬역
하매 업이 벼슬을버리고 산중에 숨엇더니 왕망
이 망후후에 공손술이 촉을웅거하여 황제로라
일르고 업의 어딜몰듯고 불러박스벼슬을하이

려흐니 업이 병을 일궤고 니디 아니 흐니 술이 소
자를 보내여 독약을 가져 겁박하여 곧 오디 오면
공후에 위를 바들거시오 오디 아니 흐면 독약을
먹이리라 흐고 소재도 래여 곧 오디 이제련해
어즈러 오니 뷔시 비를 알리오 도령이 그디 일흠
과 덕을 소모하여 베풀노 그디를 기다리니 맛당
이 우흐로 지기를 밧들고 아래로 켜 손을 위하여
신명이 완전흐면 또 흐아 름답디 아니 흐랴 그디
이 제수년을 니디 아니 흐니 도령이 식기 흐고 의
심흐여 흥화반드시 니르리니 이노니 흐게 피아

니 나라 업이 탄식 하 여 곧 오티 위티 훈 나 라 히는
드러 가 디 아 니 훈 고 어 즈 러 온 나 라 히는 사 디 아
니 훈 다 훈 는 니 배 었 디 벼 슬 을 탐 훈 여 블 의 를 조
차 리 오 스 재 업 이 굴 티 아 니 훈 를 보 고 곧 오 디 맛
당 이 집 안 사 름 과 의 논 훈 여 보 라 업 이 곧 오 디 당
뷔 밋 음 의 결 단 훈 연 디 오 란 디 라 었 디 처 조 와 췌
훈 리 오 훈 고 드 티 여 독 약 을 먹 고 죽 으 니 라

五倫行軍圖

嵇紹衛帝

晉



嵇紹譙國人官侍中太弟穎儼侈日甚大失衆望司空東海王越等謀討之奉惠帝北征徵紹詣行在侍中秦準謂紹曰今日向難卿有佳馬乎紹正色曰臣子扈衛乘輿死生以之佳馬何爲穎遣石超帥衆五萬拒戰超軍奄至乘輿敗績於蕩陰帝傷頰中三矢百官侍御皆散紹朝服下馬登輦以身衛帝兵人引紹於轅中斫之帝曰忠臣也勿殺對曰奉太弟令惟不犯陛下一人耳遂殺紹血濺帝衣左右欲浣之帝曰此嵇侍中血勿浣也

詩肅奉天威討亂臣肯論生死故逡巡蕩陰敗績

羣僚散獨被朝衣衛帝身 殺身終是要成仁千

古忠貞見一人血濺御衣仍勿浣按圖誰不爲酸

辛

히쇼논딘나라초국사롭이니시등벼슬을흐엿

더니이새에태테영<sub>딘혜테
아이라</sub>이반역하니모든신해

혜테를밧드러영을틸시히쇠또흐님군을되섯

더니시등진준이쇼드러닐러곧오디오늘난을

당하니그디도흔물이잇느냐쇠텅식하고곧오

디신지스싱으로님군을호위홀니라도흔물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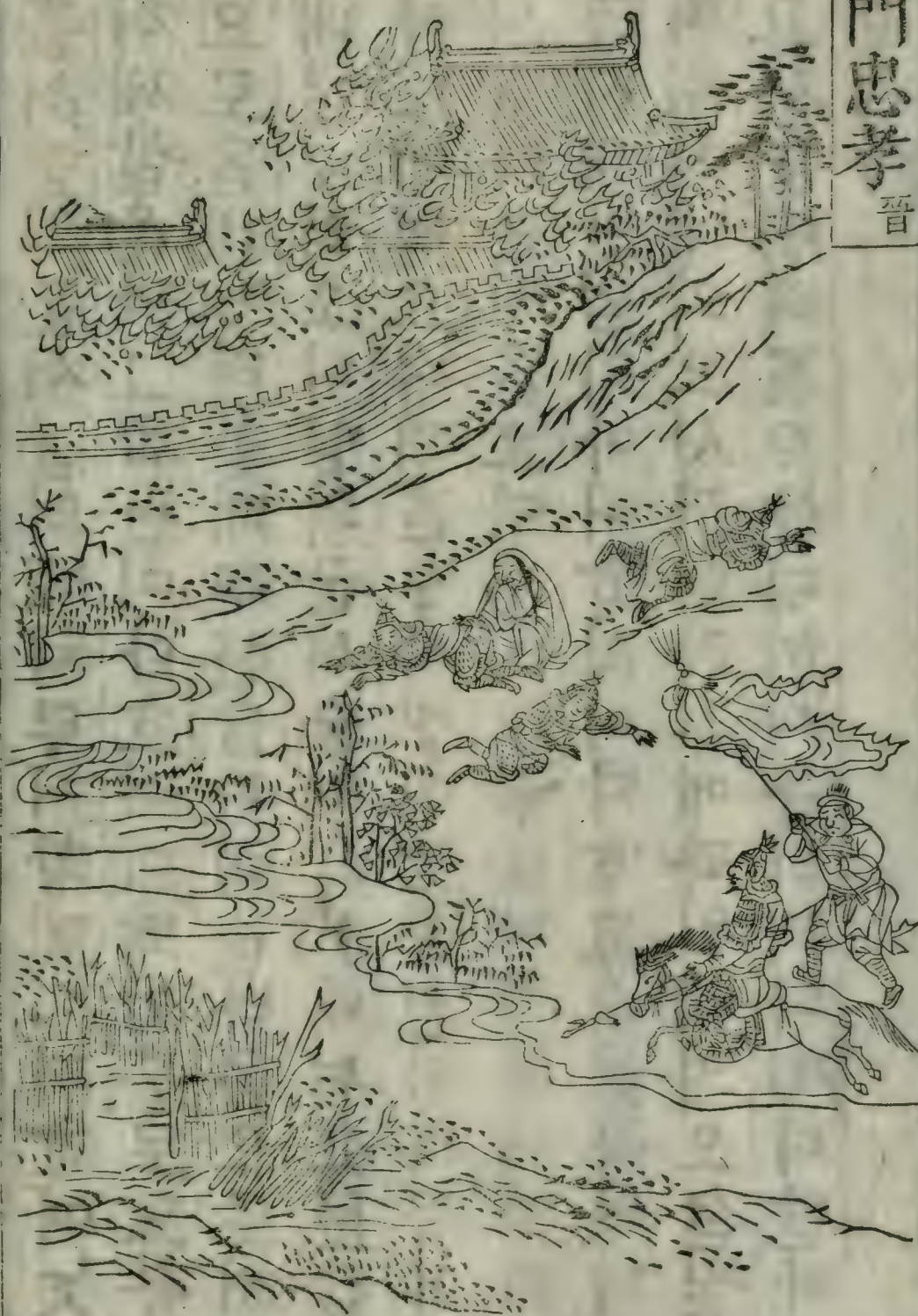
무엇하리오하더라영이당슈를보내여마자빠

홀시영의 군서불의에니르니 황테대패홀여느
치세살을맛고빅판이다흐터디되쇠홀로도복
으로물게느려황테트신술위에올라몸으로버
테를무리오니영의 군서술위가온대셔쇼를잡
아내여백으니테곧으샤덕이느통신이라죽이
디말라 군서곧오디래테의녕을바다시니폐하
홀샤름만범티아니홀리이다홀고쇼를죽이니
피쉬여테의오사젓터후에좌위테의오슬셀
고저홀대테곧으샤덕히시둥의피니셔디말라
홀시다

五倫行實圖

下門忠孝

晉



卞壺濟陰人官尚書令蘇峻舉兵反陷姑孰濟自橫
江臺兵屢敗成帝詔壺都督大桁東諸軍及峻戰于
西陵大敗峻攻青溪柵壺又拒擊峻因風縱火燒臺
省諸營皆盡壺背癰新愈瘡猶未合力疾苦戰而死
二子眇眇隨之亦赴敵死眇母撫二子尸哭曰父爲
忠臣汝爲孝子夫何恨乎贈侍中驃騎將軍開府儀
同三司謚曰忠貞祠以太牢

詩強臣跋扈濟橫江屢敗臺兵犯大邦新愈癰疽
瘡未合傾身苦戰死無雙一門忠孝兩能全二
子賢名孰比肩贈謚褒崇祠太牢輝光青史至今

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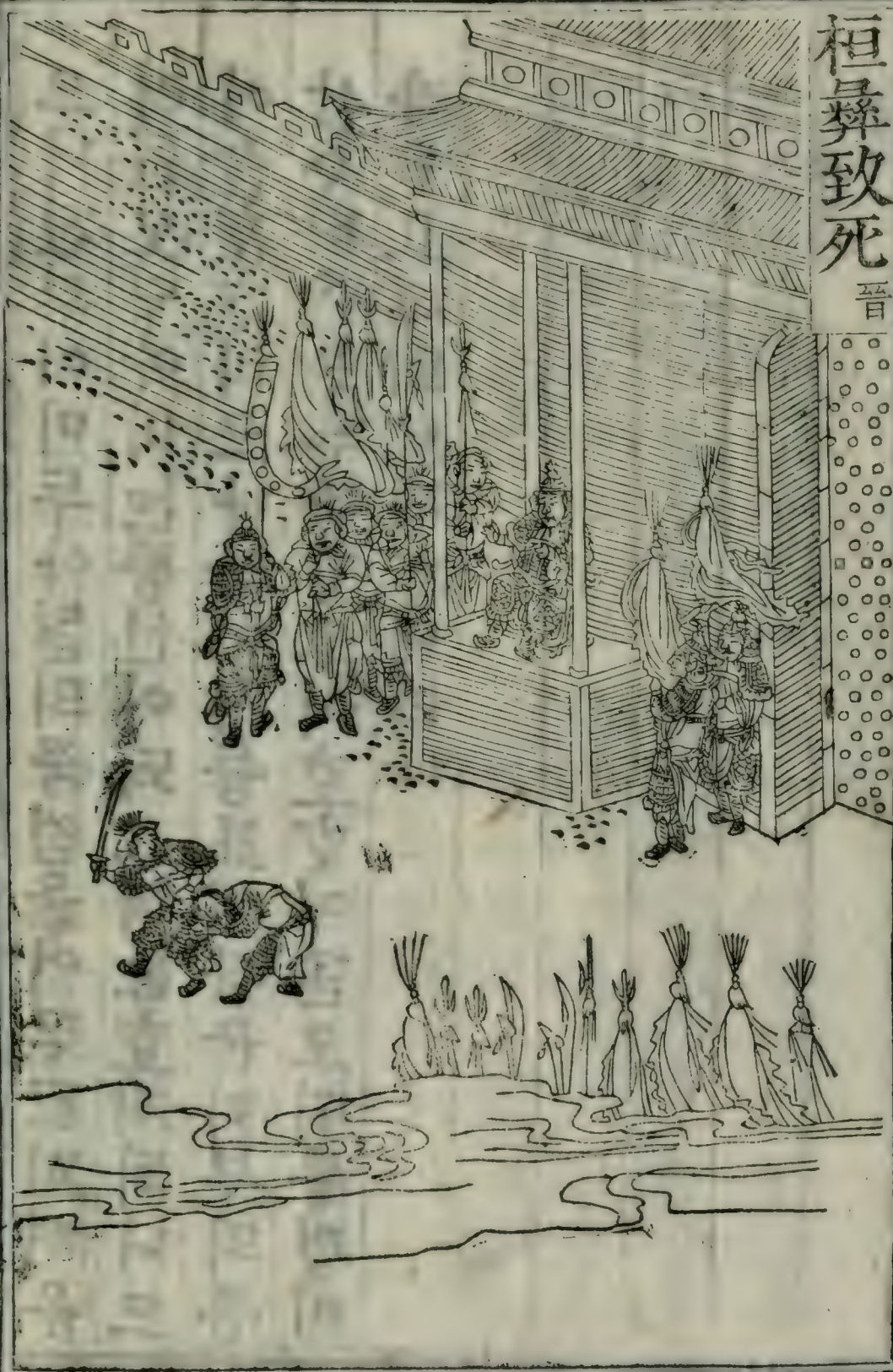
변곤은 딴나라 제음사람이니 상셔령벼슬하였
더니 소준이 반하여 고숙싸 흘함몰하고 횡강을
건너니 도성군서 여러 번 패하고 늘려지곤을 명
하여 제군을 거느려 준으로 더 브러셔릉의셔 싸
호다가 크게 패하고 또 청계척의셔 싸 흘서 준이
벼람을 인하여 볼을 노화디싱<sub>서울마
을이라</sub>과 여러 영을
다스로니 이새에 곤이 등창이 새로나아 오히려
나타 못하였더니 병을 강잉하여 힘써 싸 호다가
죽거늘 두아 돌진과 위척진의드라드러 흙씨죽

으니 전의 어미 두 아들의 죽음을 어극문지며 우
러 울 오디 아비는 통신이 되고 너는 효제 되니 모
어 슬흔 하니 오나라 하시 등표의 장군 리부의 동
삼수 벼슬을 류증하고 시 호호여 곧 오디 통정
이라 하고 태위로 제하니라

王伯行實圖

桓彝致死

晉



桓彝譙國人爲宣城內史蘇峻襲陷姑孰彝欲起兵
赴朝長史裨惠以郡兵寡弱山民易擾宜且按甲以
待彝厲色曰見無禮於其君者若鷹鷂之逐鳥雀今
社稷危逼義無晏安乃遣將討賊別帥於蕪湖破之
彝尋出石頭聞王師敗績慷慨流涕進屯涇縣惠又
勸彝與峻通使以紓交至之禍彝曰吾受國厚恩義
在致死焉能忍恥與醜逆通和如其不濟此則命也
彝遣將軍俞縱守蘭石峻遣將韓晃攻之縱將敗左
右勸退軍縱曰吾受桓侯厚恩當以死報吾之不可
負桓侯猶桓侯之不負國也遂力戰而死晃遂進軍

王伯有實錄
城陷執彝殺之

詩心期掃賊愧迤邐成敗曾將命付天俞縱感恩
終死報桓侯真箇以身先 賊勢強梁莫可接官
軍寡弱奈如何縱然死敵人臣分節義堅貞問幾
多

환이논딘나라초국사름이니선성니스버슬을
흐엇더니소죵이고숙싸흘함몰흐니환이군스
를니르혀도성을구원하려하니휘하사름이간
흐여골오디우리군서과약하고산군빅성이요
동키쉬오니아직군스를머므러기드리라흔대

환이 텅 석고 곧 오디 남군과 무례호자를 보거
든 때가 새를 엿듯 하니 이제 사직이 위티호를
보고 엿디 평안이 안자 시리오 호고 이에 당슈를
보내 여적장을 터 무호에 서파 호고 환이 석두성
으로 나오다가 나라 군서 패호를 들고 강개호여
눈물을 흘리며 군사를 나와 경현사히 딛쳐더니
혹이 권호여 소준으로 터 브러 화친호라 호대 환
이 곧 오디 내 국은을 넘어 시니 맛당이 죽을디
라 엿디 붓그러 오물차마 역적과 교통호리 오비
록 죽으나 이 호호명이 라 호고 장군 유종을 보내

여빠화또패흐니좌위종을권흐여물러나라흐
대종이곧오디내환공의듯터온은혜를넘어시
니맛당이죽으므로갑흘디라내환공을져브리
디아니흐몬곳환공의나라흘져브리디아님
드나라흐고드디여빠화죽으니적장이군을나
와성을파흐고환이를잡아죽이다

顏哀罵賊唐



五命子實圖

卷二 忠臣

十八

顏杲卿瑯琊人蔭調遷范陽叅軍安祿山聞其名表
爲營田判官假常山太守祿山反杲卿力不能拒與
長史袁履謙往迎之祿山賜杲卿紫袍杲卿途中指
衣謂履謙曰何爲著此履謙悟其意謀討祿山遂起
兵守備未完祿山將史思明蔡希德引兵至城下杲
卿晝夜拒戰糧盡矢竭城遂陷賊執杲卿履謙等送
洛陽祿山數之曰我擢爾太守何負而反杲卿瞋目
罵曰汝本營州牧羊羯奴天子擢汝爲三道節度使
恩幸無比何負於汝而反我世爲唐臣雖爲汝所奏
豈從汝反邪我爲國討賊恨不斬汝何謂反也臊羯

狗何不速殺我祿山大怒并履謙縛而劓之二人比
死罵不絕口顏氏死者三十餘人

詩杲卿忠義上天知金紫光華志豈移賴有履謙
能悟意同心報國任身危 欲討姦兇起義兵力
窮城陷竟無成忠肝激烈劓猶罵青史昭垂不朽
名

안고경은당나라낭야사람이니범양참군벼슬
을하엿더니안녹산이그일홈을들고도녕에청
하여상산태슈를하엿더니녹산이반하매고경
이능히막디못하여장소원니검으로터브러거

죽녹산을마즈니녹산이불근오솔주거늘고경
이바다남고가다가둥노에셔오솔마르치며니
검드려닐러곧오디엇디호여이오솔남엇노
니검이아라듯는디라드덕여흔가지로써호여
군소를니로혀죽산을티려흔대녹산이당슈를
보내여성을티거늘고경이듀야로빠화냥식과
살이진호여성이함몰호니적장이고경과니검
을잡아죽산의게보내니녹산이수죄호여곧오
디내일즉너를천거호여벼슬을호엇거늘엇디
날을반호는다고경이눈을부릅뜨고쑥지저곧

오딘네본디영쥬에양먹이논오랑개로턴지너
를삼도절도스룰흥이시고은통이비홀디업스
니네게무어슬져버렸판디반흥논다나논디디
로당나라신해라비록네천거흥배되나엇디너
를조차반흥리오내나라홀위흥여도적을티매
너를버히디못흥줄을흥흥노니엇디흥여날드
려반흥다흥논다비린내나는개갸튼놈아셀리
날을죽이라흥대녹산이대노흥여고경과니검
글결박흥여색가죽이니두사름이죽기에니르
드록썩짓기룰그치디아니흥고안시에절스흥

재삼십여인이러라

한글로 된 주석과 본문이 포함된 문헌의 일부. 주석은 본문 줄마다 붙어 있으며, 본문은 가로로 읽는다. (예시) 본문: ... 주석: ...

張許死守

唐

五倫子實圖

卷二 忠臣



三

張巡鄧州人許遠新城人祿山將尹子琦寇睢陽遠告急於巡巡自寧陵引兵入與遠晝夜苦戰一日或二十合遠謂巡曰遠請爲公守公爲遠戰子琦復徵兵數萬城中食盡人廩米日一合雜以茶紙樹皮議棄城東走巡遠謀曰睢陽江淮之保障若棄去賊必乘勝長驅是無江淮也且我衆饑羸走必不達不如堅守茶紙旣盡遂食馬馬盡羅雀掘鼠巡殺其所愛妾以饗士賊登城將士病不能戰巡西向拜曰臣力竭矣生旣無以報死當爲厲鬼以殺賊城陷巡被執子琦曰聞公督戰大呼輒眦裂血面嚼齒皆碎何至

是巡曰吾欲氣吞逆賊顧力屈耳子琦怒以刀抉其口巡罵曰我爲君父死爾附賊乃犬彘也賊以刃脅降終不屈并南霽雲雷萬春等皆被害生致遠於洛陽至偃師亦不屈死

詩賊寇睢陽勢甚張將軍戰守保危亡城中食盡飢羸極西向陳辭出肺腸 二公忠膽自相符壯節巍巍烈丈夫欲保江淮同固守力窮城陷竟捐軀

장순은당나라등주사람이오허원은신성사람이니안녹산의당슈윤조과슈양고을을티겨늘

이새원이슈양을딛힌디라장순의게구원하를
청호대순이군스를거느려슈양성통의드러하
원으로더브러도적을막을시듀야로힘써빠화
호로수십합을빠호니성통의냥식이진하야날
마다찰호흡과차뺏던도희와나무거품을씻거
먹노디라호이권하야성을버리고드라나라호
대두사람이곧오티슈양은강회에둥호싸히니
슈양을버리면도적이반드시이과를인하여기
리모라드러올거시니이러면강회를다버리미
오또우리군시주리고병드니엇디드르리오하

고곳이 덕희나 먹을거시 진흥매 물을잡으며 물
이 진흥매 새와 쥐를 잡아먹다가 숲이그 사랑흥
노첩을죽여 군수를먹외고룡의로버수 졸을겨
동흥나 흥나로반흥뜨지업더라도적이급히티
나당서다 병들어빠호디 못흥노더라 숲이서향
지비흥야 졸오덕신이 힘이진흥엇노더라 사라
셔나라 흥잡디 못흥오니 죽어맛당이모던귀신
이 되어도적을죽이리이다 흥고성이함몰흥매
두사람이잡히이니 추괴순드려 졸오덕드르니
공이빠흥제크게소리흥면눈마이씩여디고노

치외나며니를라다브아디터라흐니엇대그
대도록흐느뇨쇼이곧오디내역적을호임에숨
키고저호디힘이글흐엿노라호대주괴노흐여
칼로쇼의입을씨치니쇼이썩지저곧오디나느
님군을위흐여죽거니와너느도적을붓조치니
이노개돛과호가지로다도적이험박흐여행복
바드려흐거늘종시글티아니흐고죽으니이새
남제운과뇌만쥬두사람이사로잡혀죽고허원
은독산의게잡혀가다가언스싸희니르러또호
글치아니흐고죽으니라

張興鋸死

唐



張興束鹿人爲饒陽裨將祿山反攻饒陽興嬰城固守彌年不下滄趙已陷史思明引衆傳城外救俱絕城陷思明縛之馬前好謂曰將軍真壯士能與我共富貴乎興曰興唐之忠臣固無降理今數刻之人耳願一言而死思明曰云何興曰天子待祿山恩如父子羣臣莫及不知報德乃興兵指闕塗炭生人大丈夫不能剪除兇逆反爲其下哉且足下所以從賊求富貴耳譬如燕巢于幕豈能久安何如乘間取賊轉禍爲福長享富貴不亦美乎思明怒鋸解之罵不絕口以至于死

詩彌年不下守孤城併力攻圍勢已傾自謂固無
降賊理是知真箇丈夫情 被執纔餘數刻生君
臣大義說分明身膏鋸上忠肝裂罵賊終然不絕
聲

장흥은당나라속독사름이니요양고을비장이
되엇더니안녹산이반흥여요양을티니흥이성
을구디딕희여오래항복디아니흥더니독산의
당슈스름명이군스름거느려요양을에위바니
성이적고구병이오디아니흥느디라스름이성
을파흥고흥을사로잡아다래여존오디장군은

참장시라 우리와 부귀를 혼가지로 혼면엇더
노 혼이 곧 오디 나노 당나라 통신이라 항복
업거니와 내명이 시국에 이시니 원권대 혼말만
혼고 죽으리라 소명이 곧 오디 무심말고 혼이 곧
오디 텨니 녹산을 디접 혼시매 은혜부조 마득여
군신이 미치리 업거늘 녹산이 은혜갑 혼줄을 모
로고 감히 군소를 니르혀나라 흘범 혼여 성민을
도탄 혼니 대당 뷔능히 혼적을 버히디 못 혼고 도
로혀 그 신해되랴 네도적을 좇춤은 부귀를 구
미어니와 비권대저 비장막에 깃드림 마득니 엇

디오래평안하리오네승간하여도적을잡으면
해도로혀복이되어부귀를기리누릴거시니또
호아름답디아니하랴소명이대노하여흥을툭
으로혀죽이나죽도록썩짓기틀곳치디아니하
더라

王作不實圖

秀實奪笏

唐



段秀實汧陽人朱泚反以秀實久失兵必恨憤且素
有人望遣騎召之秀實與子弟訣而往見泚曰犒賜
不豐有司之過天子安得知之宜以此諭將士迎乘
輿泚不悅秀實與將吏謀誅泚未發泚遣韓旻將兵
迎駕實襲奉天秀實曰事急矣乃詐爲姚令言符令
旻且還謂同謀曰旻還吾屬無類矣我當直搏泚殺
之不克則死使劉海賓等陰結死士爲應旻至泚大
驚召李忠臣源休及秀實等議稱帝秀實勃然起奪
休象笏前唾泚面大罵曰狂賊吾恨不斬汝豈從汝
反邪以笏擊泚中顙流血鱗面忠臣助泚泚得脫走

三作不實圖
秀實謂泚黨曰我不同汝反何不殺我衆爭殺之

詩姚符詐作問何緣爲遏旻軍襲奉天扞衛于艱
功不細芳名千載孰居先 黨惡崇姦寔有徒勃
然抽笏便忘軀形骸縱被人爭殺徇國忠誠竟不
渝

단슈실은당나라견양사람이니쥬지반하매슈
실이본리인망이잇고이새오래병권을일허반
드시도당을원망하리라하여군사를보내여브
르니슈실이집사람으로더브리영결하고가쥬
스를보아의리로유하여턴스를마즈라하대

쥬지듯지아니흐거늘슈실이량니로더브러쥬

즈죽이기툴썩히더니쥬지당슈로보너여군스

를거느려대가툴마즈라히니기실은봉턴

덕종
왕테

쥬지반홀제피
란흐다명이라을엄습히라노게피라슈실이곧오디

일이급히디라하고이에거죽요령언

쥬지의
당이라

의병

부를히여가노당슈로도르블너도라오니쥬지

크게놀나니통신원휴와슈실을블너황테일즈

기론의논흐대슈실이불연이니러나원휴의가

진홀을아사즈의노치춤밧고크게사지저곧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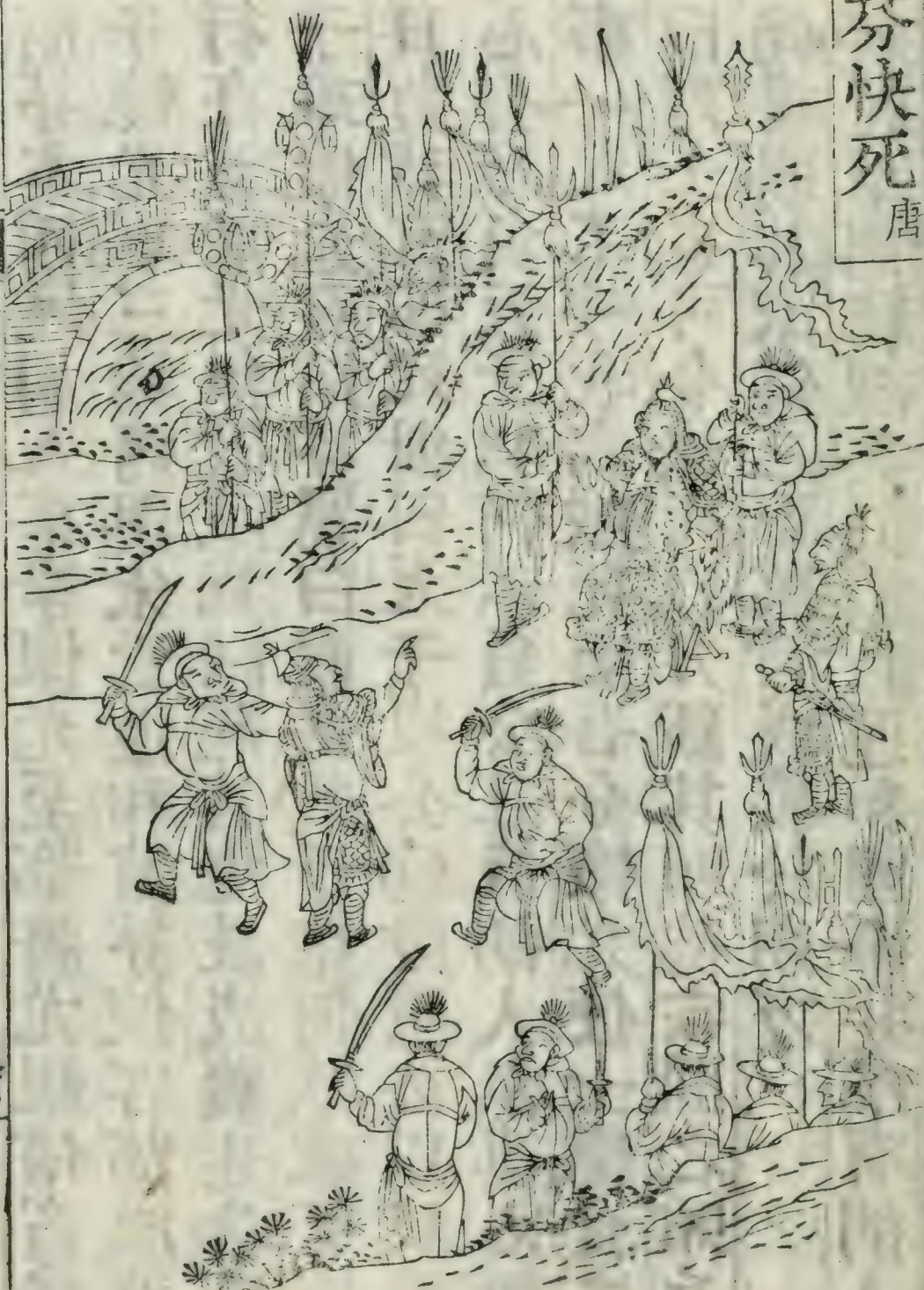
디미친도척놈아네너를버히지못흐노줄을흐

흐노니엇디너를조차반흐리오흐고홀로조를
샤려니마를마치매피홀너곳치마득흐디라니
통신이쥬조를구흐여드라나니슈실이조의당
드려닐너글오디내너희와곳치반치아니흐니
날을죽이라흐대모든도적이드토아죽이니라

演芬快死
唐

五命子實圖

卷一 忠臣



石演芬本西域胡人事李懷光至都將尤親信畜爲假子懷光軍三橋將與朱泚連和演芬使客郃成義到行在言懷光無破賊意請罷其總統成義走告懷光子璵懷光召演芬罵曰爾爲我子奈何欲破吾家今日負我宜卽死對曰天子以公爲股肱公以我爲腹心公乃負天子我何不負公且我胡人無異心惟知事一人不呼我爲賊死固吾分懷光使士嚮食之皆曰烈士也可令快死以刀斷其頸德宗聞之贈兵部尙書賜其家錢三百萬斬成義於朔方

詩將軍總統擅兵機與賊連和國事非唯有胡人

無異志冀陳行在反相違 公負君王我負公惟
知事上竭孤忠竟遭斷頸能全節千載爭欽烈士
風

석연분은당적셔역사롭이니절도스니회광이
사랑하여양조를삼았더니회광이장초역적쥬
조로더브러년화하라홀시연분이마만이그뜻
으로버턴조고하니회광이알고연분을블러
서지저조오디네내아돌이되여셔이제나를저
버려우리집을망하려하는다분이조오디턴조
노공으로버고평을삼고공은날로버심복을삼

앗느니공이타마턴조물비반흐니내엇디공을
저브리디아니흐리오나는오직훈님군만아노
니나는역적이아니니죽어도훈이업소리로다
훈대회광이군수로하여곰분을쓰저먹으라
니다곧오디널시라수이죽게하야고몬저목
을버히니련지드르시고분을병부샹셔를튜증
하고돈삼백만을그집의주시다

若水効死

朱

五倫行實圖

卷二 忠臣



李若水洺州人靖康三年徽宗至金營以吏部侍郎
扈從金人逼帝易服若水抱持而哭詆金人爲狗金
人曳出擊之敗面氣絕仆地粘罕曰必使李侍郎無
恙若水絕不食或勉之曰今日順從明日富貴矣若
水嘆曰天無二日若水寧有二主哉其僕亦慰解曰
公父母春秋高若少屈冀得一歸覲若水叱曰忠臣
事君有死無二吾不復顧家矣然吾親老汝歸勿遽
言令兄弟徐言之可也後旬日粘罕召計事若水因
歷數而罵之粘罕令擁之去若水反顧罵益甚監軍
者搥破其脣嚙血罵愈切至以刃裂頸斷舌而死臨

死歌曰矯首問天今天卒不言忠臣効死今死亦何
愆

詩胡兵逼帝易黃衣吏部哀號獨抱持矯首問天
天不語臨終一曲最堪悲雙親已老勢阨危何
不將身少屈爲縱使順從明日貴歲寒高節孰能
移

니약슈노송나라명주사름이니정강

송흙종대
년호라

삼

년에휘종황데금인

오랑
개라

의게잡히여가나이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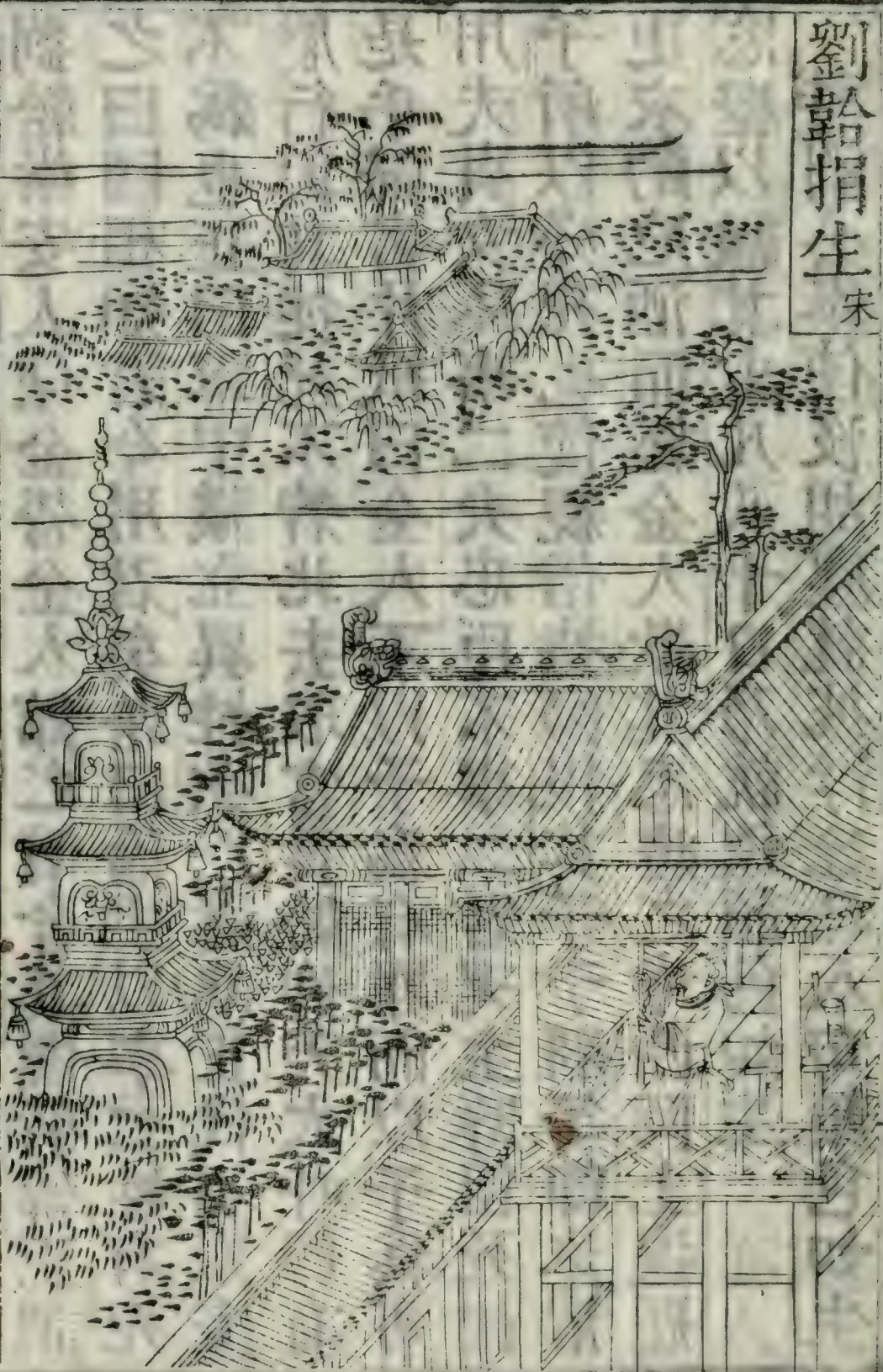
에약쉬니부시랑벼슬로황데를외시고갓더니
금인이테를핍박하여황포를벗기고청의를벗

고아님히려흐거늘약쉬테를안고올며금인을
개라고사지존대금인이약슈를쓰어내여어즈
러이터놋치새여디고괴절흐여사히업터디니
금당슈점한이날오디니사랑을죽이디말라흐
니약쉬밥을먹디아니흐고죽고져흐대혹이권
흐야글오디오놀터롤순종흐면니일부귀흐리
라약쉬탄식흐여글오디하늘에두날이업느니
내엇디두님군이이시리오흐니약슈의종이또
흐프러날오디공의부되나히늘어시니적기쿨
흐여사라도라가미엇터흐노약쉬사지저글오

디 통신이 남군을 섬기매 죽어도 두 몸이 업느
니 내 다시 집을 도라 보디 못흐노라 그 러나 내 어
버이 늙으시니 네 도라가 내 죽는 줄을 급히 숨디
달고 내 형테로 흐여곰 종용히 고흐라 후에
덤한 이 약슈를 불러 일을 의논흐거 놀약쉬인흐
여수 죄흐여 쓰지 아니 잠아느 리 위그 입을 터 새
치거 놀약쉬 피를 뵈으며 더욱 사지 존대 갈로 배
목을 베고 혀를 버혀 죽이니 약슈 죽기를 남흐여
노래 흐여 곧 오디 마 리 롤드 러하 놀기 무르미 여
하 놀이 므 참내 말을 아 니 흐시 는 또 다 통신이 죽

이름날 위미여 죽은들 또 호무 숨치 리 오호너라

劉韜捐生
宋



劉韜崇安人使金營金人館之僧舍其僕射韓正謂之曰國相知君今用君矣韜曰偷生以事二姓有死不爲也正曰軍中議立異姓欲以君爲正代得以家屬行與其徒死不若北去取富貴韜仰天大呼曰有是乎歸書片紙曰金人不以予爲有罪而以予爲可用夫貞女不事二夫忠臣不事二君况主辱臣死此予所以必死也使親信持歸報其子子羽等卽沐浴更衣酌卮酒而縊金人歎其忠瘞之寺西岡上遍題窓壁以識其處凡八十日乃就斂顏色如生

詩劉公奉使沒胡塵就彼浮丘已八旬顏色如生

良有以須知忠義格蒼旻 捐軀殉國是丹忱豈
肯偷生事彼金賊歎忠誠埋瘞謹固知狂虜亦人
心

뉴함은송나라송안사님이니금나라의소신갓
더니금나라정승이함을머물너벼슬하이고져
하거늘함이곧오되살기롤도모하여두성을섬
가문죽어도못하리로다흐대쇼여러번부귀로
버다래거늘함이하늘을우러러크게브르코도
회에글을벼꼴오되널너느두지아비를섬기디
아니하교통신은두님을섬기디아니하느니

크
하물며 남군이 욕되매 신해맛당이 죽으리라
고 쓰기를 본 태매 사름으로 하여곰 도라가 고 아
들의게 전하라 하고 즉시 목욕하고 오솔라 님
고 술부어 먹고 목미여 죽으니 금인이 그 통생을
탄식하여 합의며 이르러 션절서 편언덕에 못고 창
과 벽의 두로 글을 써고 곳을 기록하였다가 팔십
일만에 다시 네여 념습하니 열골이 사라 실적
더라

傳察植立
宋



五八節丁實圖

卷一 忠臣

傅察孟州人宣和七年爲接伴金國賀正使時金人已渝盟察至燕山聞幹離不入寇或勸其毋遽行察曰銜命以出聞難而止若君命何遂行遇幹離不領兵至曰汝國失信吾興師南向海上之盟不可恃也察曰兩國講好信使往來項背相望何謂失信太子于盟而動意何爲乎虜左右促使拜白刃如林察曰死則死耳豈有俱人臣而輒拜者或抑摔使伏地察愈植立衣冠顛頓終不屈幹離不怒曰爾不拜我邪麾令去察知不免謂其下曰我死必矣我父母老素鍾念我聞之必大戚若等得脫幸記我言以告吾親

知我死國少解其無窮之悲也衆皆泣旣次燕山遂遇害

詩傳公銜命至燕山間敵渝盟莫肯還白刃如林終不屈輕生就死自安閑虜令屈拜立如山抗節孤高不可攀臨死解親無限恨兩全忠孝古來難

부찰은송나라망쥬사람이니금국의수신가더

니이새알리불

오랑캐일
힘이라

이이의군수를리혀드

러오논디라혹이권하여가디말라하거늘찰이
곧오디군명을밧자와나오다가엇디난을듯고

그치리오호고드디여헝헝여길히셔알리불을
만나니알리불이부찰드려닐오디네나라히실
신흥매내군스룰니르혀오느니전일밍세노가
히밋디못호리라찰이곧오디낭국이화친호여
스신이낙역왕니호느니라네엇디호여실신흥
다호느노네밍세룰져브리고동병호여오니엇
딘스디노좌우오랑개찰드려절호라호고검극
이수풀마르니찰이곧오디죽을디언정엇디네
게절호리오오랑개찰을잡아누르고싸히업디
게호거늘찰이박은드시셔셔종시굴티아닌대

알리불이 노흐여 잡아내여가라흐니 찰이 죽으
물면티 못홀줄을 알고 석라 간사 롬드려닐오되
내부되 날을 심하 사랑하시니 내죽으물드르시
면반드시 크게 설워흐실거시니 네도라가내말
숨으로알외디나라일에죽으니 설워마르쇼셔
하라흐니 보느재아니 올니 업더니 므춤내죽인
배되니라

邦父書襟

宋



楊邦乂吉水人建炎三年杜充駐劄建康金人大至
充率麾下降金人濟江逼城董餉使李稅知府陳邦
光皆出降金帥完顏宗弼既入城稅邦光率官屬迎
拜邦乂時爲通判獨不屈以血大書衣裾曰寧作趙
氏鬼不爲他邦臣宗弼不能屈翼日遣人說邦乂許
以舊官邦乂以首觸柱礎流血曰世豈有不畏死而
可以利動者速殺我宗弼與稅邦光宴堂上立邦乂
于庭邦乂叱稅邦光曰天子以若扞城賊至不能抗
更與其宴樂尚有面目見我乎有劉國練者以幅紙
書死活二字示邦乂曰欲死趣書死字邦乂奮筆書

死字金人相顧動色已而宗弼再引邦又邦又不勝
憤大罵曰若女真圖中原天寧久假汝行磔汝萬段
安得汙我宗弼大怒殺之

詩金兵大至建康危杜遁陳降勢不支惟有楊公
終不屈巍然壯節是男兒 刺血書襟意自真寧
爲趙鬼不他臣可憐一死全忠節藉藉聲傳億萬
春

양방예는송나라길슈사람이니건염 송고종대
년호라 삼

년에금인이크게니르러건강의드러오니동향

소 군양동척하
는관원이라 니절과건강디부진방광이다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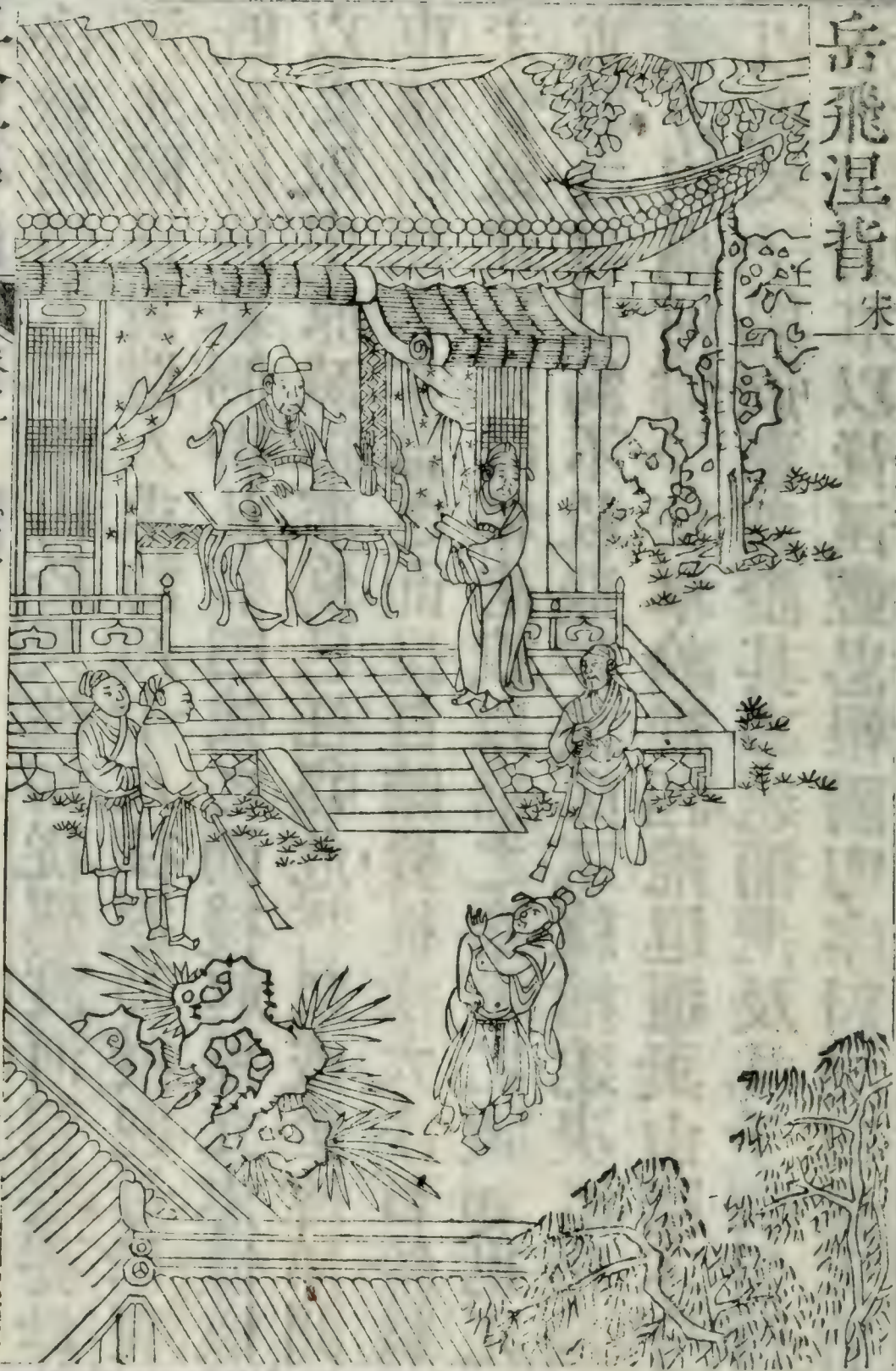
항복하니 방예이씨에 통판벼슬로 잇더니 홀로
항복기 아니하고 손가락을 싸미러 피를 내여 옷
기시크게 베풀온 오디 출하리 송나라 귀신이 되디
언텨 다른 나라 신해되다 아니하니라 하니 금당
쉬능히 굴하게 못하여 이튼날 사름으로 하여금
방예를 다래여 온 오디 만일 항복하면 전벼슬을
도로하니라 방예마리로 쥬초를 부디 이저 온 오
디 엿디 죽기를 두려워 아니하니 오디가 히니로 다
래리 오날을 쉴니 죽이라 하니 대금당쉬니 절과 진
방광으로 더브러 당우히 잔치하고 방예는 쉴아

래세오니방예방광등을썩지저곧오디련지너
희로호여곰도적을막으라호엿거늘도로혀도
적과호가지로잔치호고즐기니네무슨노초로
날을보는다금인이저근죠희에글조들흔배보
니호나흔죽으리라호노조호나흔살리라호
눈지어늘방예부슬드리죽을소조를쓰니금인
이서로도라보며차탄호더니이튼날또방예를
쓰어드리거늘방예크게썩지저곧오디하늘이
장춧너를일만조각에죽이실거시니엇디날을
더러일다호대금당쉬대노호여죽이니라

岳飛渥背宋

五帝子賢司

卷二 忠臣



岳飛相州人忠孝出於天性初從駕渡河畱妻養母河北陷沒飛遣人求訪凡十八往返乃獲迎母母喪既葬廬於墓側御札數四強之而後起飛立志慷慨以必取中原滅讎虜爲己任臨危誓衆或至流涕聞車駕所在未嘗背之而坐自結髮從戎大小百餘戰未嘗敗北高宗賜精忠旗以嘉之秦檜之議和也兀朮遺之書以爲不殺飛和議必不就檜遂決計殺飛使万俟卨何鑄等交章論劾誣飛逗遛棄山陽不守以飛父子與張憲書證其事遂捕飛及其子雲對簿飛爲裂裳示以背涅盡忠報國四字因笑曰皇天后

土可表此心獄久不決檜手書小紙付獄尋報飛死
時洪皓在金蠟書馳奏金人所畏服惟飛至以父呼
之或呼爺爺諸酋聞其死爲酌酒相賀云

詩奸兇誤國欲和親誓取中原有幾人舉義復讎
爲已任岳王忠孝出天真盡忠報國出丹誠涅
背還應字字明愛養軍兵嚴紀律古今誰得更齊
名

악비논송나라상쥬사름이니련성이통효하여
오랑개난에고종황테를되시고남경으로피란
흔시안히를집에두어노모를봉양하라하고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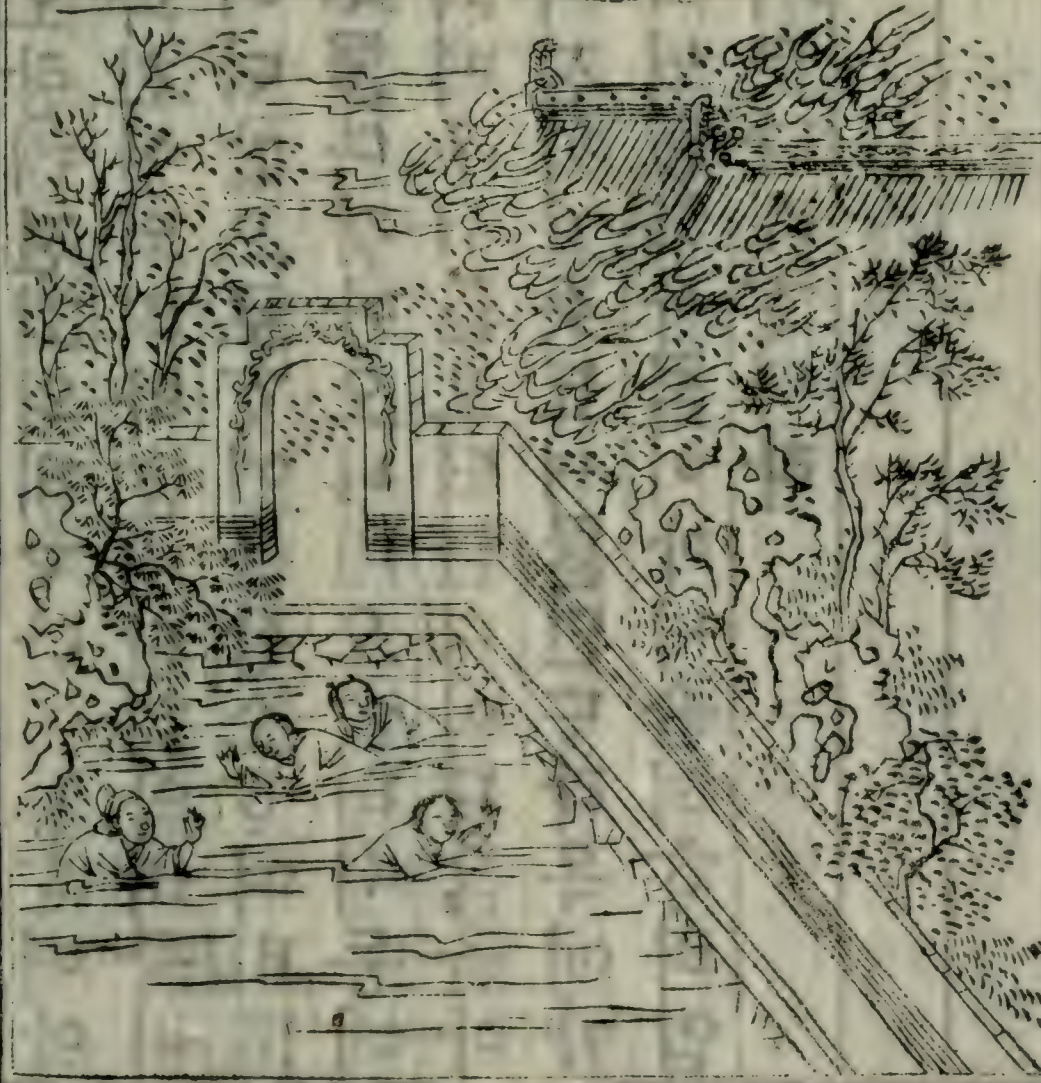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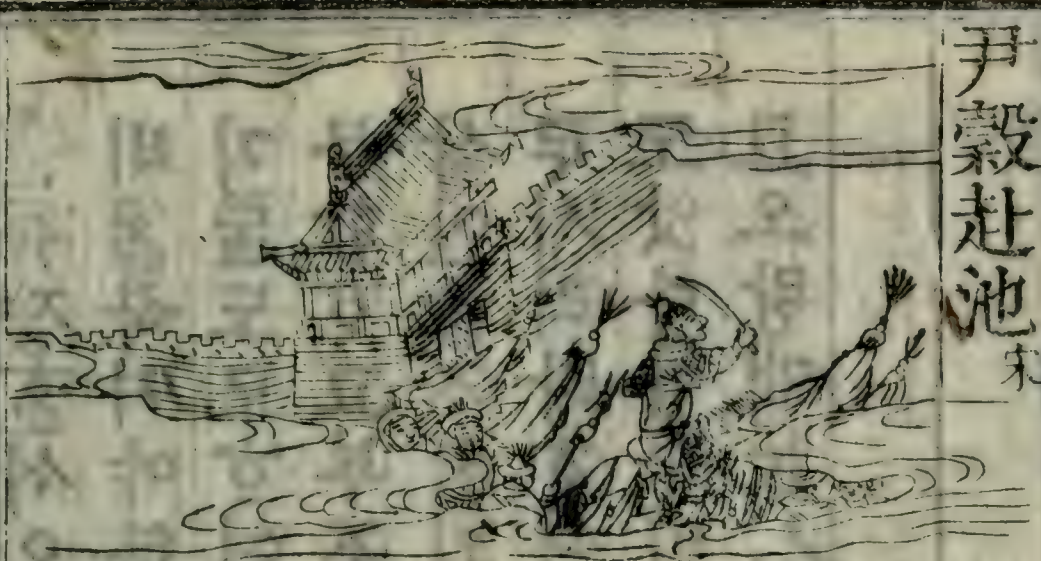
터니 하복사히다오랑개게함몰흔디라비사름
을보내여노모를초졸시열여삼번왕니흔여계
요마작왓다가인흔여모상을만나무덤것히녀
막히고잇터니황테어찰로여러번부르시니비
개연히니러나딩세코오랑개를멀흔고둥원을
흥복흔려흔여등에진통보국네글조를삭이고
바흐마다이괴여향흔바에디덕흔리업는디라
련지아롭다이너기샤괴우히정통이라두조를
크게버주시니오랑개악비의괴를보면다드라
나터라이새에승상진회오랑개와화친흔의논

을쥬장홀시오랑개진회의게만이동하여악
비를죽여야화천이되리라흔대진회악비죽이
기를도모하여덕간으로하여곰상소하여비를
무함하고부르물다잡아오니비오슬버서등에
삭인글주름되며우서홀오덕턴다이몸음을아
르시리라하니진회거죽도셔물민드라옥에가
도앗다가죽이니턴하사름이야니슬허허리업
고오랑개는서로하례하더라

尹穀赴池

王伯仁

宋



尹穀潭州人德祐己亥差知衡州待次家居潭被元
兵城將陷知事不可爲乃爲二子行冠禮人曰今何
時行此迂闊事穀曰正欲令兒曹冠帶見先人於地
下耳旣畢禮具衣冠望闕再拜謂其弟岳秀曰可急
去不可使尹氏無後吾受國厚恩義當死岳秀曰兄
旣死弟將安往願俱死城陷自火其廬舉家赴池死
詩元兵南下肆頑兇力竭無由脫賊鋒爲子猶能
行冠禮平生義氣自從容回頭北望拜君門自
叙平生受厚恩兄弟爭相投水死一家忠義動乾
坤

윤곡은 송나라 담주사람이니 덕우

송 효공 때
년호라

이 년

에 형주 원을 향하여 미처 도임 못하고 집에 있더니
원나라 군시크게 드러와 담주를 에워싸니 곡이
성을 보전티 못할 줄을 알고 그 두 아들의 관례를
힘히 하니 사람이 날오디이엇더 호새완디이런오
활활일을 힘히 한다 곡이 곧 오디우리 죽게 되여
시니 아히들로 하여곰 관디로 디하의가 선인과
뵈고져 하노라 하고 관례를 못치매의 관을 정히
하고 대궐을 향하여 지비하고 그 아으 악슈드려
날너 곧 오디너는 급히드라나 문호를 보전하라

나느나라히은혜를넘어시니의맛당이죽으리
라후대악취온오덕형이죽으면내어덕로가리
오원컨대又티죽으리라후터니성이함몰후매
스스로그집을불지르고일문이다모시싸져죽
으니라

王佐不仕

天祥不屈
朱



文天祥吉水人德祐初元兵三道大入詔天下勤王
天祥捧詔泣爲發郡中豪傑以烏合萬人赴義或謂
曰子是行何異驅羊而搏虎天祥曰吾亦知其然也
第國家養士三百年一朝有急無一人入關者吾深
恨此故不自量力而以身殉之五坡嶺之潰天祥旣
被執吞腦子不死至崖山元帥張弘範令以書招張
世傑天祥曰我不能扞父母乃教人叛父母乎弘範
曰國亡矣殺身爲忠誰復書之天祥曰商非不亡夷
齊不食周粟人臣各盡其心何論書不弘範改容送
燕不食八日不死丞相孛羅問曰汝立二王做得甚

事天祥曰立君以存宗廟存一日則盡臣子一日之責人臣事君如子事父母父母有疾雖甚不可爲豈有不下藥之理有死而已何必多言繫獄月餘元主爲召入問曰汝何願天祥曰某受宋恩爲宰相無事二姓理願賜一死足矣至元壬午賜死臨刑殊從容謂吏卒曰吾今日事已畢南向再拜乃就死數日其妻歐陽氏收其屍面如生檢衣帶中有贊曰孔曰成仁孟曰取義惟其義盡所以仁至讀聖賢書所學何事而今而後庶幾無愧

詩國亡家破見忠臣仰藥從容欲殺身重義輕生

終不屈高名千載獨離倫 繫獄艱辛至月餘一
身忠節不渝初衣中有贊辭深切無愧平生所學
書

문헌상은송나라길슈사람이니원나라군사세
길로크게려드려오니헌지도셔하여헌하에구
원병을브른대헌상이도셔를바다눈물을써리
고의병을거두어항홀시혹이곧오디이엇디양
을모라범을탐과다르리오헌상이곧오디내소
헌모로는줄이아니로디국가에급호마잇거늘
헌사람도응호리업스니내갑히헌호논디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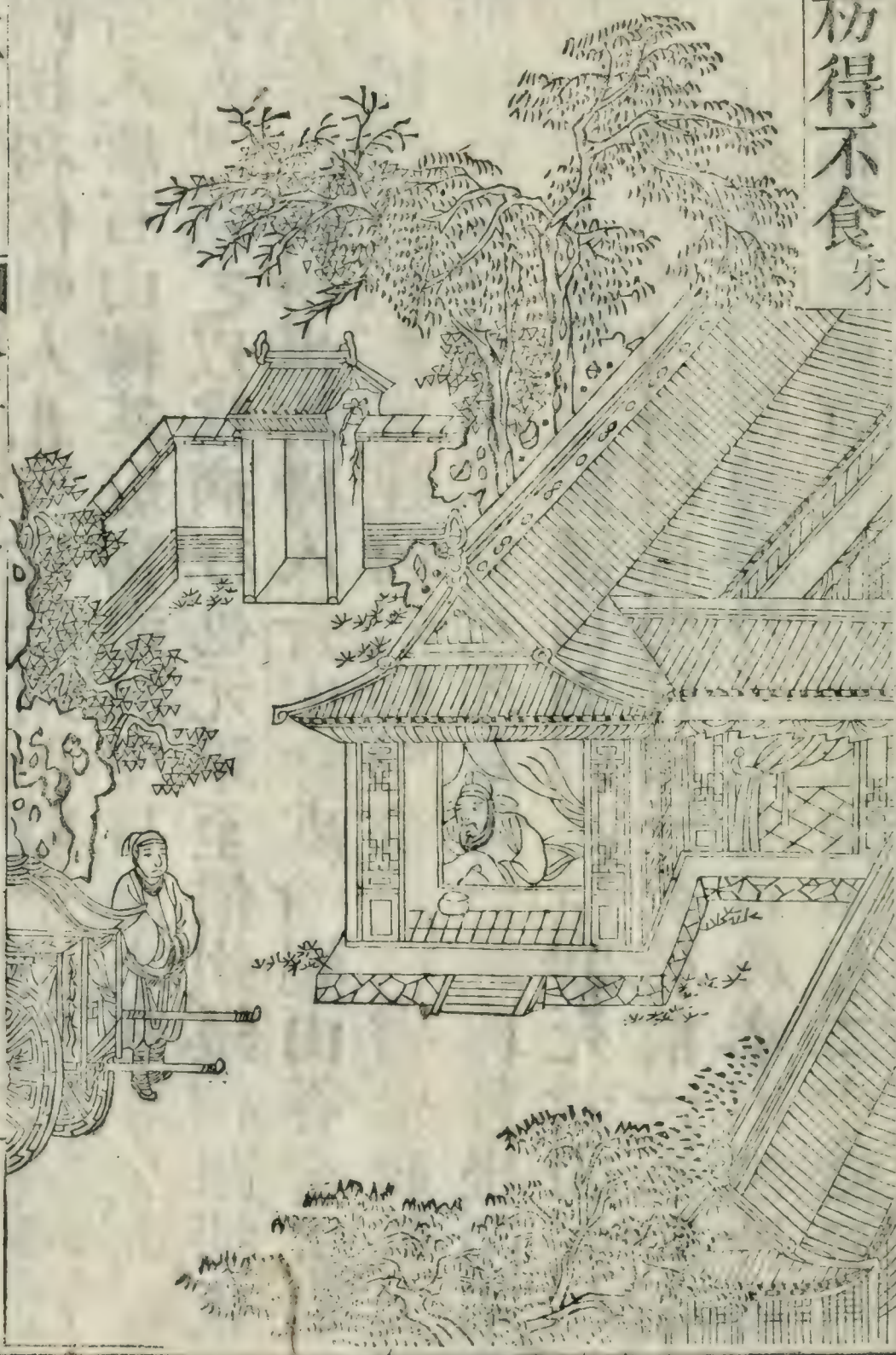
러므로 힘을혜아리디아니하고죽기로나라를
감히리라하고더니런상이오랑개게잡히여독약
을삼키되죽디아니하고는디라이새장세겔과늑
슈워턴즈를외쳐백물트고애산바다가온대로
드라나니원나라당슈장홍범이런상을핍박하
여글을민드라장세겔을부르라하고늘런상이
곧오던네능히님군을호위티못하고차마남을
권하여님군을비반하리라하고대원나라당슈
곧오던네나라히망하여시니네비록몸을죽여
통신이되고져하나후세에누알니오런상이곧

오딘은 나라히 망하여 사되 백이 숙제 주나라 곡
식을 먹다 아니 하니 인신이 그 마음을 극진이 흘
려 줌이라 었디 후세에 알며 모로 기를 의논 하니
오하고 팔일을 굴모 되 죽다 아니 하니 다라 원나
라 정승 본래 무려 곧 오딘 나라히 망하게 되 세
에 두 님 군을 세오니 무심 일을 하였노다 천상이
곧 오딘 군을 세워 홀라라도 종묘를 보전 하니
신하의 척망이라 님 군 섬기며 부모 섬김과 님
부와의 병이 이시면 비록 죽게 되여 신들 었디 약을
쓰다 아니 하니 오하고 종사 굴을 쓰디 업스니 옥

에가도앗다가인하여죽인배되니죽기롤넘하
여남향저비하고종용히죽으니라그안히구양
시죽엄을거두니얼골이사랏노듯하고옷가온
대셔글을어드니그글에곧오디몸을죽여인을
널오몬공주의말숨이오살기롤버리고의롤취
하몬밍주의말숨이라성현의글을읽으매비혼
배무숨일인고이젠후의야거의붓그러오미업
도다하엿더라

枋得不食

宋



謝枋得信州人北軍攻饒州拒戰于安仁敗績變姓名入唐石山轉茶坂寓逆旅中日麻衣躡屨東向而哭人不識之以爲病狂也元軍至信州鏤枋跟捕執妻李氏拘揚州枋得入蒼山寺處崎嶇山谷會大赦乃出時妻已斃寓建陽之驛橋福建行省叅政魏天祐逼以北行枋得不肯以死自誓天祐與言坐而不對或嫚言無禮天祐讓曰封疆之臣當死封疆安仁之敗何不死枋得曰程嬰杵臼一死於前一死於後王莽篡漢十四年龔勝乃死死有重於泰山輕於鴻毛蓋棺事定叅政豈足以知此卽不食二十餘日不

死至燕京問謝太后櫬所及瀛國所在再拜慟哭遷
憫忠寺見壁間曹娥碑泣曰小女猶爾吾不如若哉
畱夢炎使人持藥雜米飲以進枋得怒曰吾欲死汝
乃欲生耶擲之地終不食死

詩摧鋒陷敵志無成遁跡山林變姓名數月茹蔬
終死節凜然千載樹風聲 元兵跌宕力難當戰
敗流離寓建陽羞事二君輕一死名畱竹帛更輝
光

샤방득은송나라산유사름이니송이망할새에
원나라군시요유샤흘타거노방득이막아빠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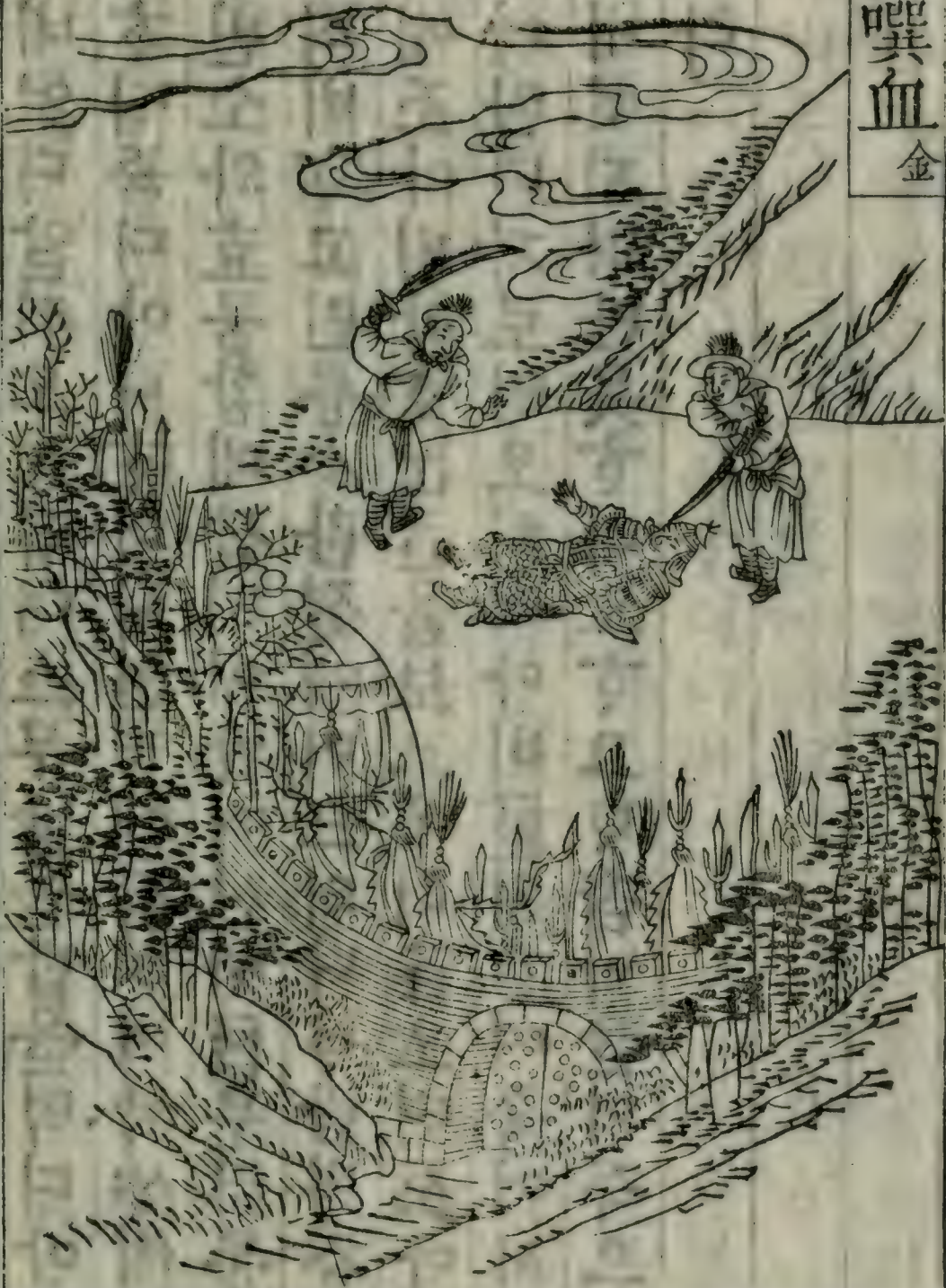
다가 패하여 드라나 성명을 못치고 산등에 드러
가 뵈웁과 집신으로 날마다 동향하여 통곡하니
사람이 다 광인이라 하니 원인이 두로 방을 부
터 근포홀시 방등의 처니 시를 잡아 가도니 방등
이 창산소라 하니 절에 숨었더니 원나라 참정벼
슬 하니 위천위방등을 잡아 꺾박하여 제나라 호
로드러 가려 하니 늘방등이 죽기로 베풀어 다 아니
호대련위 곧 오디네 더리 홀작시 면엇다 볼셔 죽
디아니 하였는 다 방등이 곧 오디 죽으니 태산의
셔 등 홀적도 잇고 더력의 셔가 비어 올적도 잇는

니네엇디알리오드디여스무날을밥을먹디아
니흐디죽디아니흐더나연경에잡히여가샤래
후빈소와효공황테잡히여가겨신디를무러통
곡지비흐고민릉스란절에머므더니브람벽스
이에조아비라흐노글을보고우러올오디조아
논어린녀제로디오히려아비를위흐여죽어시
니내엇지더만못흐리오흐고목참니글머죽으
니라

五倫不實

和尚嘸血

金



完顏陳和尚金宗室爲忠孝軍提控正大五年蒙古
兵入大昌原平章合達問誰可爲前鋒陳和尚出應
命沐浴更衣若將就木然者擐甲上馬不反顧以四
百騎破八千衆御軍有方坐作進退皆中程式所過
州縣秋毫無犯每戰則先登陷陣疾若風雨諸軍倚
以爲重三峯之敗走均州城破兵入趨避隱處殺掠
稍定乃出自言曰我金大將陳和尚也大昌原衛州
倒回谷之勝皆我也我死亂軍中人將謂我負國家
今日明白死天下必有知我者時欲其降斫足脛折
之割口吻至耳嚙血而呼至死不屈蒙古將義之酹

以馬潼曰好男子年四十一詔贈鎮南軍節度使塑
像褒忠廟勒石紀其忠烈

詩元兵闌入大昌原募應前鋒將虎賁四百能摧
八千衆先登奮勇似雷奔難將抔土障黃流斫
劃要降罵不休天下果知明白死褒忠紀石表山
丘

진화상은금나라당쉬라몽고의군사크게드러
오니화상이조원하여선봉이되어도적을려싸
흠마다이괴더니삼봉싸히서패하여잠간숨엇
다가도적이주검과노략질을저기그친후에나

와닐러올오디나노금나라대당진화상이라어
즈러온군등의셔죽으면사름이아디못하고나
라흘쳐버리다흘거시니오늘날명백히죽어런
하로하여곰알게하리라현대도적이잡아항복
바드려하거늘화상이항복디아니현대발목을
버히고입을씩여귀사디니르니피를썸으며크
게사지저종시굴티아니하고죽거늘도적이차
탄하여올오디호남조라하더라이새에나히스
십일세라금나라히그통의를아름다이너겨진
남군절도스버슬을튜증하고얼골을그려제하

게고돌히사겨그통돌을괴물이니라

絳山葬君 金



卷二 忠臣

六四

完顏絳山哀宗之奉御也蔡城破哀宗傳位承麟卽
自縊于幽蘭軒點檢內族斜烈將從死遺言絳山使
焚幽蘭軒火方熾于城破大兵突入近侍左右皆走
避獨絳山畱不去爲兵所執問曰汝爲誰絳山曰奉
御絳山也兵曰衆皆走而獨後何也曰吾君終于是
吾俟火滅灰寒收瘞其骨耳兵笑曰若狂者邪汝命
且不能保能瘞而君邪絳山曰人各事其君吾君有
天下十餘年功業不終身死社稷忍使暴露遺骸與
士卒等邪吾果瘞吾君後雖寸斬不恨矣兵以告其
帥奔盞曰此奇男子也許之絳山乃掇其餘燼裹以

樊衾瘞于汝水之旁再拜號哭將赴汝水死軍士救
之得免後不知所終

詩國破君終衆散亡挺身胡奈獨彷徨遺骸不忍
哀原野掇拾慙瘞汝旁 左右蒼黃共避擒獨
畱收骨意方深兵人固識奇男子終使安全得盡
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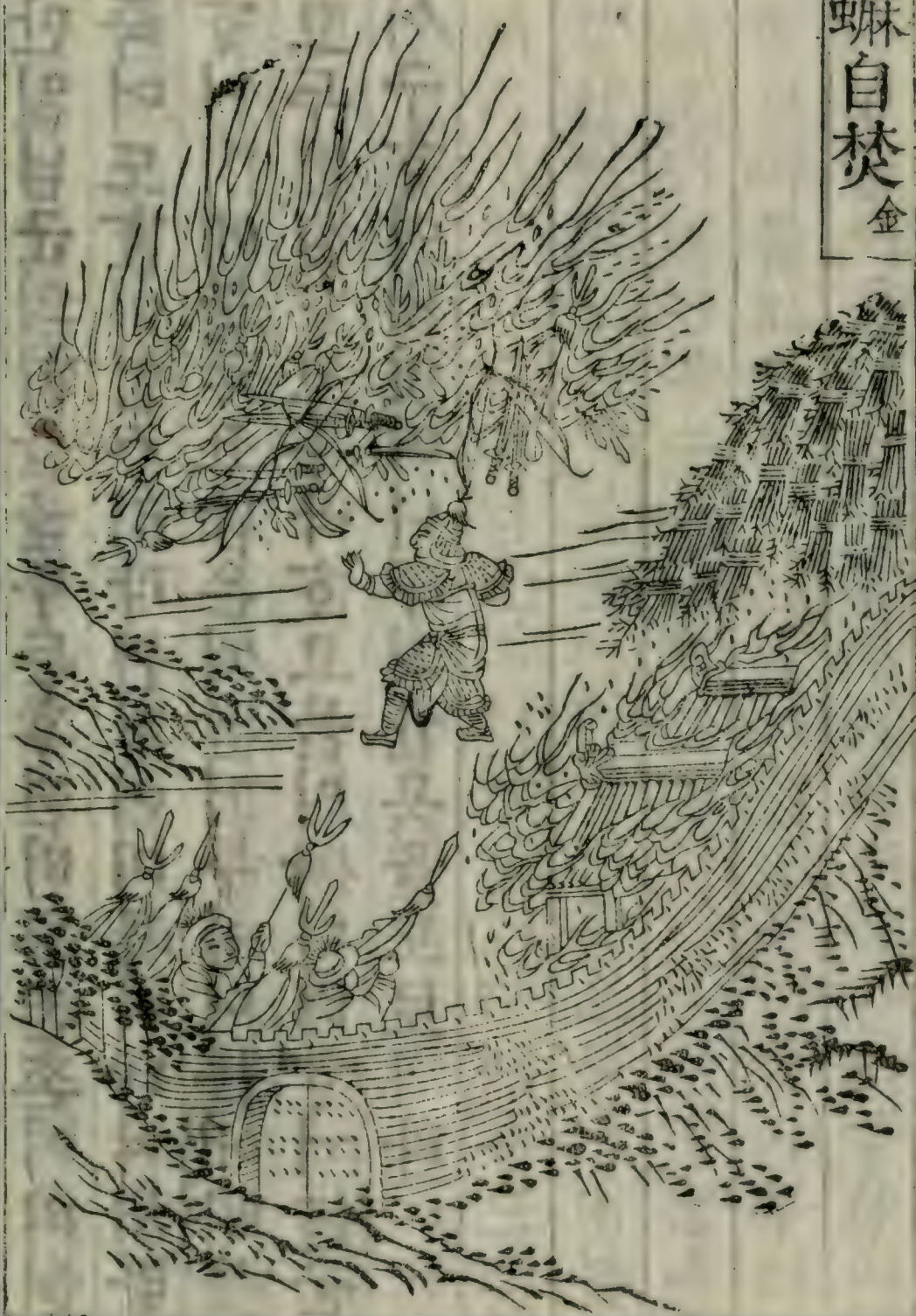
강산은금나라의종새봉어벼슬하노사름이라
의종이원병의게핍박하여유란현이라하노집
에서독미여죽으니털검니족벼슬하샤럴이사
라죽을시강산으로하여곰집의블을노터니원

나라 군시들 입흐거늘 좌위다 드러나 되 강산이
홀로 머물고 가디 아나흐거늘 도적이 잡아 무려
곶오디 남이다 드러나 거늘 네 엇디 홀로 잇는다
강산이 곶오디 내 남군이여 괴셔 죽으시 내 불
셔 디기 툼기 드러 남군의 희골을 거두어 무드려
흐노라 호대 원병이 우서 곶오디 네 장초 죽게 되
엇거든 어느 결을 에네 남군의 희골을 무드리 오
강산이 곶오디 우리 남군이런 하물 두 선디 십여
년에 공업을 못디 못흐시고 몸이 샤적에 죽으시
니 차마 희골을 버려 죽은 군사와 마티흐리 오내

만일 님군의 히물을 무든 후면 비록 촌촌이 버혀
죽어도 후이 업소리라 원병이 거득이 너겨 허락
흐니 이에 불투고 남은 썩을 거두어 너 불에 빠 못
고 두 번 절하고 통곡하고 물의 싸디려 하고 놀군
시구 하여 내 엿더니 후의 간 곳을 모로니라

王倫行實圖

蝦蟆自焚金



郭蝦蟆會州人爲洮河元帥金亡西州無不降潰獨
蝦蟆堅守孤城元兵攻之蝦蟆度不能支集州中所
有金銀銅鐵雜鑄爲礮以擊攻者殺牛馬以食戰士
又自焚廬舍積聚曰無至資兵日與血戰軍士死傷
者衆乃命積薪於州廨火既熾率將士於火前持滿
以待城破兵填委以入鏖戰既久士卒有弓盡矢絕
者挺身入火中蝦蟆獨上大草積以門扉自蔽發二
三百矢無不中者矢盡投弓劒于火自焚城中無一
人肯降者蝦蟆死時年四十五土人爲立祠
詩可憐金末洮河帥獨守孤城力不支餉士仍令

焚積聚終焉血戰死爲期 州廨燔薪勢已傾奮
身鏖戰共輕生闔城自斃無遺子千載流傳不朽
名

곽하마노금나라회주사롭이니벼슬하여도하
원쉬되엇더니금나라히망홀새에원나라군사
크게드러오니셔쥬모든고을이항복디아니하
리업스되하매홀로외로온성을구디덕희엇더
니원병이급히티니하매힘을다하여싸화냥식
이진하매돌과쇼를다잡아군스룰먹이고섭흘
집알피싸하블을노코군스룰거느리고블알피

셔활을드리여도적을기드리니적병이무수이
드러오노디라죽쳐빠홀시궁시진호는군시드
토와블의드라들고하매홀로플빠흔디올라문
밖으로몸을꺾리오고살수삼빅을쏘아도적을
무수이죽이고살이진호니활과칼을블가온대
더디고드디여스스로블에드러죽으니성동이
흔사름도항복호는재업더라하매죽을새에나
히스십오세라그싸사름이스당세위제호니라

王伯行實錄

普顏全忠
元



普顏不花蒙古氏官叅知政事至正十八年詔與侍御史李國鳳經略江南至建寧陳友諒遣鄧克明來寇國鳳遁去普顏不花曰我承制來此去將何之誓與此城同存亡耳拒戰六十四日大敗賊衆明年召還授山東宣慰使守益都 大明兵壓境普顏不花捍城力戰城陷平章保保出降普顏不花還告其母曰兒不能兩全忠孝幸有二弟當終養拜母趨官舍坐堂上主將素聞其賢召之再三不往旣而面縛之普顏不花曰我元朝進士官至極品事已至此何以生爲竟不屈而死其妻阿魯真抱其子投舍北井其

女及妾孫女皆隨溺二弟之妻各抱幼子及婢妾溺
舍南井死

詩親承詔命撫南方敢愛微軀棄土疆國鳳何人
潛遁去誓將城堡共存亡 忠孝誠難兩得全居
官効死職當然可憐妻子皆投井節義家聲萬古
傳

보안불화논원나라사름이니참지정스벼슬하
여강남에순흥훈식건녕싸히니르려도적진
우량의당슈와싸화여러번파흐고익도싸흘릭
희엇더니 대명군사와티니불해성을웅거흐

여힘버빠호더니성이함물흐매덩승보보노나
가항복흐거늘불해그어미드려고흐여골오되
내통효를낭전티못흐게되엿노라아으들이
이시니맛당이모친을봉양흐리이다흐고하직
흐고가관가집의안죠티니 대명당쉬불화의
어딘일홈을듯고두세번브르다가디아나흐대
군소를보내여잡아가니불해골오되나노원나
라신하로벼슬이놉חת노디라일이이미이에너
르러시니사라무엇흐리오흐고므참내골티아
나흐고죽으니그안히아로진이또호아들을안

고우물에싸질시슬과첩과손녀와두아의안히
각각어린아히를안고종들서다다싸라싸져죽
으니라

堤上忠烈
新羅

丘公補丁實圖

卷二 忠臣



七

朴堤上新羅始祖赫居世之後仕爲歆良州干先是
實聖王遣奈勿王子未斯欣質倭又遣未斯欣兄卜
好質高句麗訥祇王立思得辯士往迎之堤上請行
至句麗說王同歸王喜曰念二弟如左右臂今只得
一臂奈何堤上拜辭不入家至倭國給言王殺我父
兄故逃來倭王信之堤上與未斯欣乘舟若游玩者
倭人不疑堤上勸未斯欣潛還未斯欣欲偕歸堤上
曰俱去恐謀不成未斯欣行旣遠倭王囚堤上問曰
何竊遣王子對曰臣是雞林臣欲成吾君之志耳倭
王怒曰言雞林臣必具五刑命剝脚下皮刈蒹葭使

趨其上問曰何國臣曰雞林臣又使立熱鐵上問何
國臣曰雞林臣倭王知不屈燒殺之妻率三娘上鷄
述嶺望倭國哭死

詩訥祗初立念天倫辯士旁求得此人質弟歸來
全二臂新羅千載一忠臣 勸欣還國滯扶桑身
被淫刑最可傷哭望東溟妻又死至今忠烈史增
光

박테상은신라사조혁거세후손이니신라왕의
두아이를나흔왜국에볼모잡히이고흔나흔고
구려에볼모잡혀갓더니왕이심히보고저흔여

변소를어더가마자오랴홀시데상이조원하여
고구려에가그왕을다래여볼모를노제하고또
왜국에가왜왕을속이고왕의아으를만이바
를터와보벌시닐너곧오덕내함씩가면씩일우
더못하리라하고머물너잇더니왜왕이알고테
상을가도고무러곧오덕내엇디왕테를만이
보내엇는다데상이곧오덕나는신라신해라우
리남군이왕테를싱각하여보고져하시매내닐
군의뜻을일오미로라왜왕이노하여곧오덕내
감히신라신해로라하고면반드시죽이리라하고

테상의 밭바당가쪽을벗기고곶밧홀뵈여놀나
게흐고테상을그우흐로쓰으며무리곶오디네
뉘신한다테상이곶오디신라신해로라또쇠를
불의달화그우히세우고무리디네뉘신한다테
상이또곶오디신라신해로라왜왕이곶티아니
홀줄을알고불에술와죽이니그안히테상의죽
으믈듯고놉흔녕의올라왜국을뵈라며울고죽
으니라

不寧突陣

新羅



不寧子不知鄉邑族姓新羅善德王元年百濟將軍
義直率兵分攻甘勿桐岑二城王遣金庾信率兵拒
之苦戰氣竭庾信顧謂不寧子曰事急矣子能奮激
出奇以勵衆心乎不寧子拜曰當以死報出謂奴合
節曰吾爲國家死之吾子舉真年雖幼有壯志必欲
俱死若父子并命則家人疇依汝其與舉真好收吾
骨歸以慰其母心卽鞭馬橫槊突陳格殺數人而死
舉眞望之欲赴合節曰大人令合節奉阿郎還家以
慰夫人今子負父命棄母慈可乎執馬轡不放舉眞
曰見父之死而苟存豈孝子卽以劍擊折合節臂奔

入敵中戰死合節曰所天崩矣不死何爲亦交鋒而死軍士爭進斬首三千餘級王聞之涕淚禮葬厚賜詩二城受敵勢將危倉卒將軍力莫支奮激出奇能勵衆一身忠義永無隲 囑奴收骨慰家人突陳橫戈不顧身合節舉真相繼死宜加恩禮獎忠臣

비녕은 신라 사람이니 당슈 김유신을 조차 박테와 싸화 군사 괴운이 진하니 김유신이 비녕을 두려워오되 능히 괴특호세를 내여 군심을 격동케 하라 비녕이 곧 오되 맛당이 죽기로 갑호리

라흐고그종합절드려닐오디네나라흠위흐여
죽을거시나내아들거진이비록어리나장흐뜻
이잇노디라반드시흐가지로죽으려흐리나만
일부지다죽으면집사름이놀을의지흐리오네
거진을드리고내썩을거두어도라가그어되
음을위로흐게흐라흐고즉시창을뱃가고몸을
쳐쳐적진을충돌흐여두어사름을죽이고인흐
여빠화죽으니거진이برا보고적진의다라가
죽으려흐거늘합절이곧오되대인이날로흐여
곰낭군을보전흐여도라가부인을위로흐라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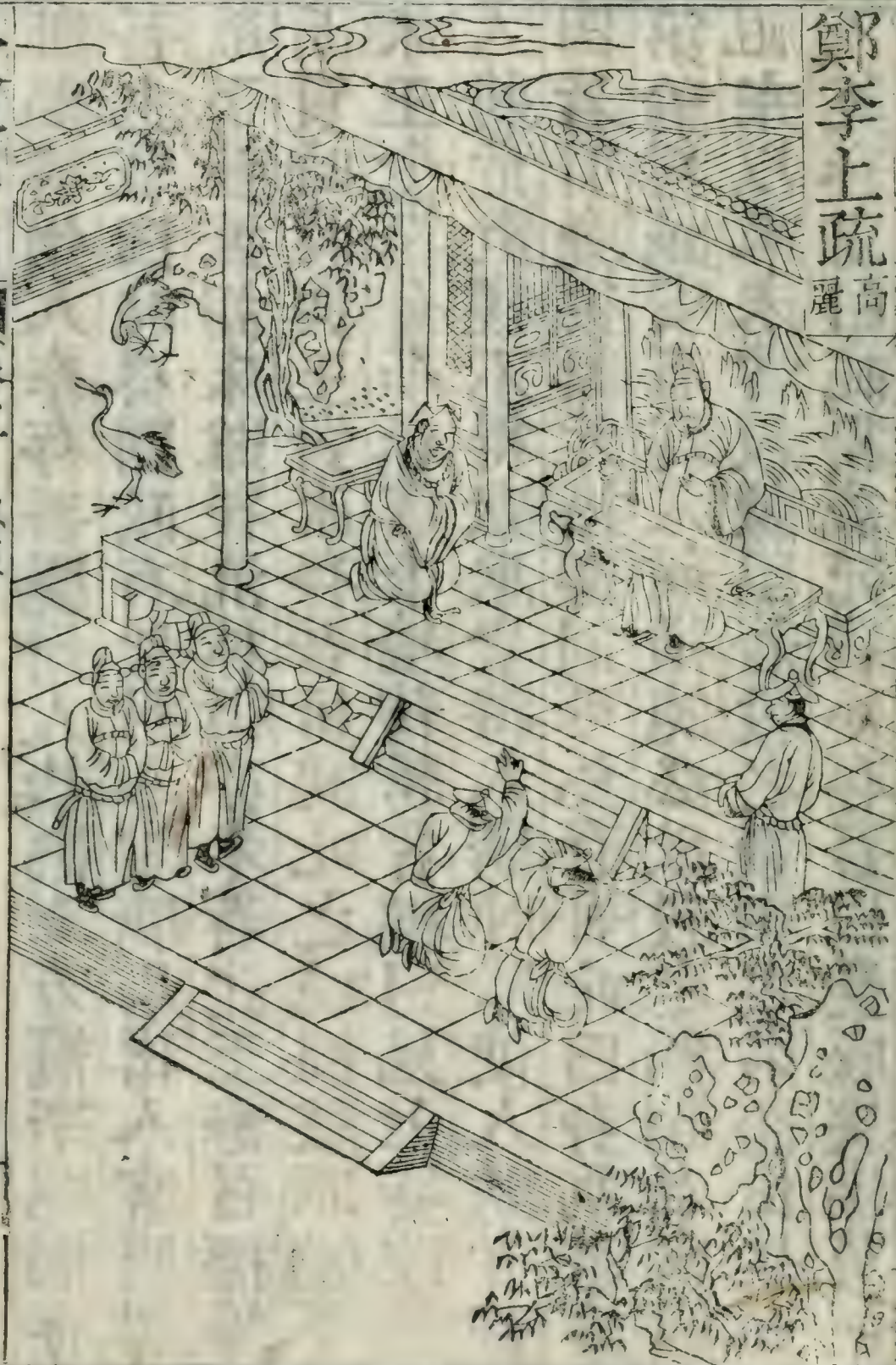
시니 엿디 아비명을 저버리고 어미의 이름을 찾
려 호노호고 물 곳 비를 잡고 노티 아니 호니 거
진이 곧 오디 주식이 아비죽으믄 보고 구차하 살
면 엿디 호저 리 오호고 갈로 합절의 풀을 더 버히
고 적진으로 두라 가 빠화죽으니 합절이 곧 오디
쥬인이 죽은 디라 내 엿디 살 리 오호고 또 빠화죽
으니 군시 다 토아 나 아가 크게 이 권 디라 신라 왕
이 듯고 눈물을 흘 리고 네로 장수 호고 그 집에 지
믄을 만히 주 나 라

鄭李上疏
麗高

王命丁實圖

卷二 忠臣

七



鄭樞清州人李存吾慶州人恭愍王方寵幸昽樞存
吾上疏曰昽專國政有無君心常騎馬出入宮門與
殿下並據胡床雖崔沆林衍亦未若此王怒召樞等
面責時昽與王對床存吾曰昽叱之昽惶駭不覺下
床王愈怒命李春富李穡鞠誘者樞曰見上委政非
人將危社稷不得默默豈待人誘昽陰使人誘存吾
曰若引慶復興元松壽則可免存吾叱曰身爲諫官
第論國賊安有爲人所指昽必欲殺之穡謂春富曰
祖宗以來未嘗殺諫臣若殺之領相之名恐由是而
不美春富白昽得減死謫外存吾以憂成疾疾革使

扶起曰眈尙熾乎眈亡吾乃亡反席未安而卒

詩並據胡床敢抗衡專權擅政國將傾倘非二子
忠誠激冒死何人伏間爭 王心蠱惑信姦回可
鑑玄陵養禍胎怒目一言眞斧鉞賊眈從此膽先
摧

噫嗟고려청주사람이오니존오노경주사람
이니고려공민왕이중놈신들을사랑하여평소
돌어즈러이니噫嗟나존오두사람이상소하여
둔의죄상을나룬터왕이대노하여두사람을불
러부지르지시어새에둔이왕을더하여상우히안

뜻노디라 존외 눈을 브릅쓰고 두운 썩지 아니 둔
이 황망 허상에 누린 뒤 왕이 더옥 노흐여 두 사람
을 잡아 저 주어 무르디 뒤라 셔너를 무르쳐 상소
하라 하더뇨 디흐여 곧 오디 왕이 못알 놀의게 정
소를 맞쳐 나라히 망하게 되어 시매 잠잠티 못하
여 하미라 엇디 남의 무르쳐 물바다 시리오호대
둔이 무만이 사름으로 호여 품존 오를 다래여 제
게 의온 사름을 다히라 호거 곧 존외 썩지저 곧 오
뒤 몸이 간관이 되어 나라도 적을 논 회호여 시너
엇더 남을 다히리오호대 둔이 죽이고져 호거 놀

너 식이 위흐여 쥬션흐여 귀향보내엿터니 존외
병드러 죽을새에 붓들너니 러안자 곧 오디신든
이 그저사 랐느냐 이놈이 죽어야 내 죽으리라
고 도로누어 즉시 죽으니라

五倫不實區

夢周殞命

麗高



鄭夢周迎日人爲高麗門下侍中初崔瑩勸辛禡興師攻遼我太祖舉義回軍復立王氏趙浚鄭道傳南闔等知天命人心所在欲推戴太祖洪武壬申三月太祖墮馬夢周忌浚道傳闔等同心輔翼令臺諫劾流之遣金龜聯李蟠就貶所將殺之義安大君和興安君李濟等白太祖曰勢已急矣將若之何太祖曰死生有命但當順受而已和濟退謂麾下士趙英珪曰李氏之有功王室人皆知之今爲人所陷後世誰知麾下士其無効力者乎英珪曰敢不從命英珪等要於路擊殺夢周太祖大怒因病

王倫不實圖

篤至不能言 太宗卽位以專心所事不貳其操贈

諡文忠

詩麗季衰微泰運升羣賢攀附摠飛騰從容就死
烏川子啓我朝鮮節義興 忠義由來不可湮平
時砥勵且無人疾風勁草尤難見須識高麗一个
臣

형몽주는영일사람이니고려망후생경승이라
태조대왕의런명과파인심이다도라오니도준파
형도전과남은등이 태조를진심하여도으니
형몽주크게근심하여되간으로하여곰도준형

도전남은등을논박하여귀향보내게하대의안
대군화와흥안군니테등이도영규드려닐러온
오디니시왕실에큰공이잇거늘이제위티하
게되여시니너희등이이새로당하여힘을쓰디
아니하려하느나영귀드디여길에즐릿다가몽
쥬를터죽이니 태죄드르시고크게노하샤병
들기에나르려겨시더니그후에 태종대왕이
즉위하샤몽쥬의왕시의던통하믈아름다이너
기샤시호를주어문통공이라하시니라

王作和實圖

吉再抗節

高麗



吉再海平人仕高麗洪武己巳棄官歸家至庚辰
太宗在東宮召之再至啓于定宗授奉常博士再
啓東宮辭職太宗教曰子之所言實關綱常但
召之者吾而官之者殿下也宜辭於殿下再乃
上書曰再擢第辛朝爲門下注書臣無二主乞放歸
田里終養老母以遂臣不事二姓之志明日定宗
御經筵問知經筵事權近曰吉再抗節不仕未審古
人何以處之近對曰嚴光不屈光武從之再若求去
不如使之自盡其心之爲愈也乃許歸仍復其家
世宗卽位承太宗命官其子八年丙午贈左司諫

大夫

詩崧山王氣已成灰眞主龍興泰運開尙戀舊君
全一節飄然歸臥子陵臺 亭亭高節凜秋霜直
欲追蹤餓首陽聖代褒崇彰義烈三韓億載樹綱
常

길지논고려히평사롭이니고려말에벼슬하

가홍무 명태조대
년호라 귀수에벼슬을브리고집의도라

갓터니아 태종대왕이동궁의겨실새에브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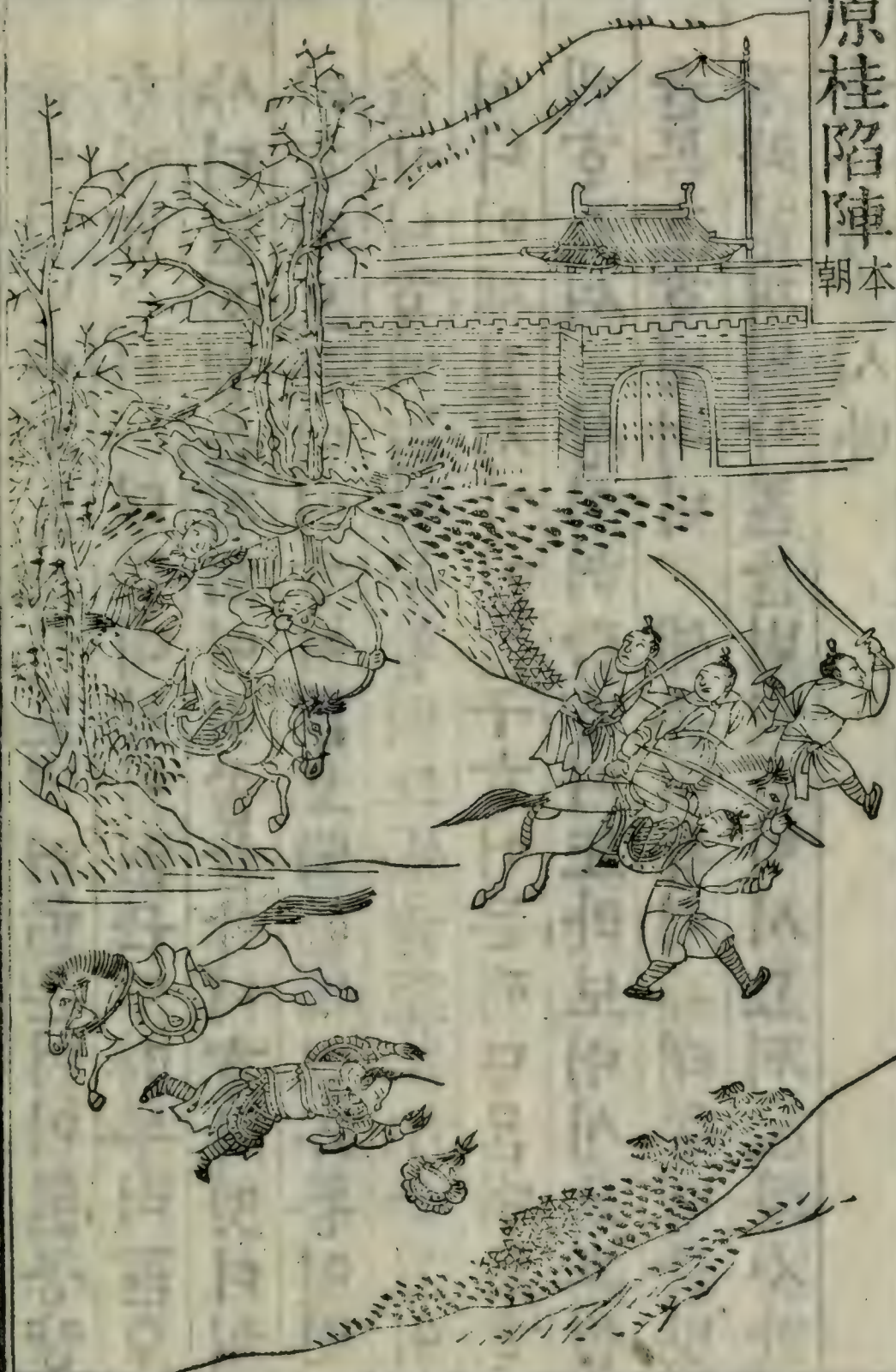
신대지오거늘 대묘에엮자와벼슬하이시니

지밧디아니하고글을올려조오디신하노두님

군이 업느니 지를 고하 보내여 늙은 어미를 봉양
하. 게. 하. 쇼. 셔. 텅. 종. 대. 왕. 이. 권. 근. 드. 러. 무. 러. 곧.
샤. 디. 길. 지. 절. 을. 직. 희. 여. 벼. 솔. 을. 아. 니. 하. 니. 엇. 디. 처.
티. 하. 리. 오. 근. 이. 디. 하. 여. 곧. 오. 디. 한. 새. 엄. 주. 릅. 이. 벼.
솔. 아. 니. 하. 거. 놀. 팡. 무. 황. 텅. 그. 쫓. 을. 조. 차. 노. 하. 보. 내.
시. 니. 이. 제. 길. 지. 가. 기. 를. 구. 하. 거. 든. 제. 밋. 음. 대. 로. 하.
게. 하. 쇼. 셔. 상. 이. 허. 락. 하. 여. 도. 라. 보. 내. 시. 고. 그. 집.
을. 복. 호. 하. 였. 더. 니. 세. 종. 대. 왕. 이. 태. 종. 명. 을. 받.
주. 와. 길. 지. 의. 아. 들. 을. 벼. 솔. 하. 이. 시. 고. 지. 는. 좌. 소. 간.
을. 튜. 증. 하. 시. 다.

原桂陷陣

朝本



金原桂爲泥城萬戶洪武丁丑倭賊寇宣州率兵赴
援倭賊戰敗解圍去原桂乘勝逐之突入虜中遂爲
賊所害諫官上言原桂素有驍勇之才提孤軍解重
圍全城於幾陷追亡逐北突衝陷陳矢盡力窮竟以
不振以一身之死易萬民之命其功烈烈死且不朽
乞令攸司贈官且於本處立祠叙錄子孫獎慰忠魂
教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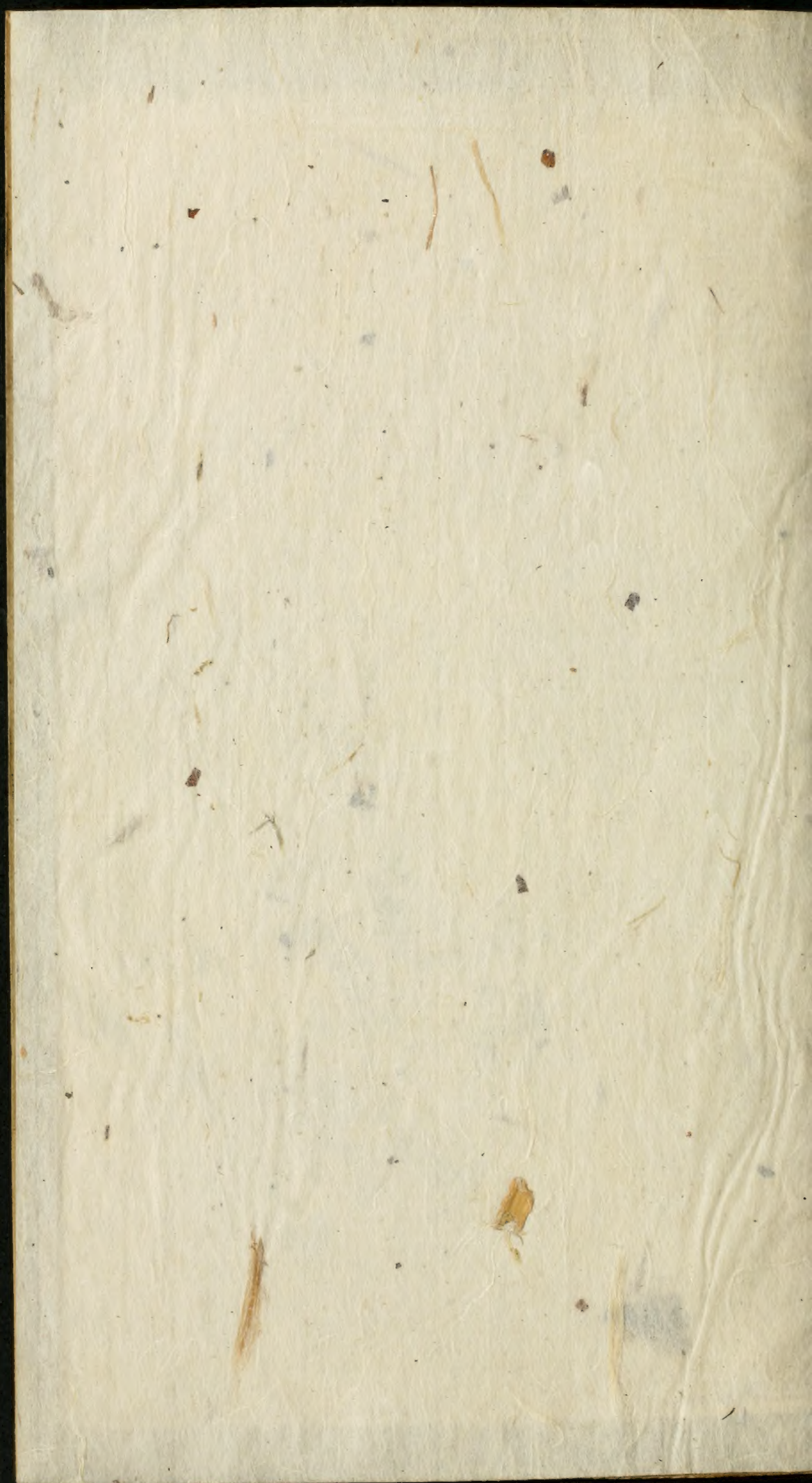
詩倭奴窺伺肆頑兇來寇宣城疾若風鐵甲將軍
心膽壯解圍摧敵樹邊功長驅遠鬪救危城臨
難何曾愛此生義氣凜然忠貫日聖朝追贈重褒

旌

김원계는 본묘사람이니 서로변장으로잇더
니 홍무영륙에 왜적이션주와 티거늘원계군
수를거느려구원하니 왜병이대패하여드라나
거늘원계이괴물타적진통의돌입하여엇다가도
척의게죽은배되니 딩간이상소하여곧오딘원
계본디 호응은지죄잇더니 외로온군수를거느
러위티 호성을보전하고 적진을충돌하다가살
이진하고힘이궁하여막춤내죽으나 호몸으로
써 만민의명을بات고니 그공이렬렬하여죽어도

장차석디아닐더라 청전대판자를 튜증하고 그
곳의 소당을 세우고 조손을 베풀고 이여 통훈을
위로하여 디이다 훈대 상이 좇츠시니라

五倫行實圖卷第二



四

五

國

姓

子

德

姓

二